

집편 회학어선조

# 회음

昭和十九年四月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日(每月一日)刊(行)

朝鮮主日學校聯合會

第三卷第七號(九月號)

## 차 목

標準語 問題	鄭寅燮	(1)
標準語 查定 二讀會		(8)
字母의 이름을 보고	金昌禹	(14)
五洲衍文長箋散稿 解題	方鍾鉉	(61)
朝鮮語讀本 卷二 指導例	沈宜麟	(18)
노작 (詩)	카를라인	(25)
文學과 文士와 文章 (三)	李光洙	(26)
朝鮮歷史 講話 (五)		(39)
로빈손 무인철도 浮류기 (五)		(32)

京城府鍾路(丁)目九十一番地

朝鮮主日學校聯合會

第三卷 第七號(九月號)

欲七錢

# 朝鮮語學會 規則

第一條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稱함

第二條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을 目的함

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하기爲

하여 左記 部署를 設함

經理部

庶務部

會計部

出版部

圖書部

第四條 本會는 京城에 設함

但 地方에는 支會를 設기도 함

第五條 本會의 入會는 本會 會員의 推

薦으로 幹事가 審査한 後에 許諾함

但 入會를 許諾한 時에는 入會金 壹

圓을 納여야 함

第六條 本會 會員은 每年 會費 貳圓을

負擔함

第七條 本會 會員으로서 一年동안 한번

도 모임에 出席이 없고 會費를 納지

아니한이는 別會員으로 編入함

但 退會를 願하는이는 幹事長에게 退

會를 請하여야 함

第八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

이는 本會의 贊成員으로 함

第九條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長 一

人과 各部 幹事 一人씩을 設함

一、幹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各部를

統轄함

二、經理部 幹事는 本會의 經營에 專

力함

三、庶務部 幹事는 本會의 通信、記錄、

其他 다른 部에 屬하지 아니한 事

務를 맡음

四、會計部 幹事는 本會의 會計事務를

맡음

五、出版部 幹事는 本會의 出版事務를

맡음

六、圖書部 幹事는 本會의 文庫事務를

맡음

幹事長과 幹事는 總會에서 選舉함。

必要를 따라 部員 若干人을 設함 때

에는 幹事會에서 選定함

第十條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本會員 三分之一 以上の 出席이

라야 함

但 定員에 達하지 못할 때는 在京會

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함을

得함

第十一條 必要한 時에는 臨時總會를 열

기로 함

第十二條 本會는 每月 한번씩(들재 土

曜日) 月例會를 열음

第十三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함

一、講演會

二、講習會

三、講義錄、學報、研究叢書、調查報告

書、關係 古文獻、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第十四條 本會則을 고치려 할 때에는 總

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第十五條 本規則에 未備한것은 幹事會 또

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 標準語問題

鄭寅燮

## 第一節 言語의 分化와 綜合

言語의 分化는 古代 및 野蠻社會에 顯著하고、現代 文明社會에서는 그와 反對로 綜合 現象이 顯著하다。 물론 現代의 複雜한 文化生活에 있어서 個性의 發達에 의지한 言語感情의 精密한 進歩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古代나 野蠻社會에서 볼수있는 것과 같은 孤立的인 分散的 現象과는 判然히 다른 것이다。

Gabelentz 씨와 Meyer 氏는 말하되 뉴우기니아 東西部인 마크레海岸에서는 各 村落마다 特有한 地方語를 가지고 있어 그 곳에서 六、七 乃至 八哩 떨어진 곳에서는 벌써 거의 理解할수 없는 程度라 하며、하루 旅行하려 함에는 적어도 二、三人의 通譯이 필요하다고 한다。

但 Nicelford 씨가 그 著書 「隱語의 特性」(Le Genie de L' Virgot)에서 Timor 島 (Lesser Sunda islands)에서 十萬人에 四十의 地方語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文明國에서는 原始族과 같은 言語의 分裂은 없고、共通言語의 統一現象이 濃厚하다。 그렇다고 그가 운대 方言地域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그 接近線은 그리 명백하지 아니하다。

대저 方言이 構成되는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겠으나、人文 및 地理上의 障害가 가장 重大한 作用을 하는 것이니、例컨대 羅典語가 佛語、葡語、伊語、루마니아語 또는 기타로 分化된 사실도 그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綜合作用으로써 英語가 一億五千萬、獨逸語가 七千 五百萬이란 다수가 使用하게 되었고、西班牙語만이라도 往年 羅馬帝國의 世界를 支配하던 당시의 羅典語보단 더 많은 사람이 使用하게 되었다。

이것은 近代의 交通發達、結婚範圍의 擴大 기타의 文化學術의 交換이 盛行됨에 따라 相互의 言語 또한 차차 그 通用性을 增加하여、十九世紀 後半 및 二十世紀에 이르러서는 各國의 政治的 統一과 大都市의 發生 또한 出版文化의 發達에 따라 標準語 運動이 盛行되게 되었다。

## 第二節 標準語의 效果

그러나 이 標準語의 效果는 두 方面으로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第一은 社會生活의 能率化

第二는 教育的 手段으로

第一의 社會生活의 能率化라 함은 方言을 사용하고 있던 각 地方 사람들이 이로 하여금 막혔던 意思를 완전히 또는 敏活하게 통하게 되며, 誤解와 反感을 덜게 되어 文化生活을 增進하게 하는 것이다. 例컨대 全



6818050

란 것은 서울시는 二錢이요, 慶尙道, 全 錢이요, 忠淸道에서는 十錢을 뜻한다. 우리에게서는 圓과 錢에 대한 標準이 共 同으로 있으므로 매우 便利한 것이다. 滿洲에서 奉天紙幣와 中央政府 紙幣에

다 日本銀行의 朝鮮銀行이 混用될 때의 不便이야 말 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第二의 教育的 手段으로 必 要하다고 함은 모든 智識의 傳達과 人格 陶冶의 手段으 로써 言語의 標準的 使用이 없다면 教育者와 被教育 者間의 意見이 不明하거나 혹은 不通되는 때문에 그 教育은 失敗라 하겠다.

例컨대 朝鮮語에서 「犬」이라는 말이 「가이」로 되고 혹은 「개」라고 한다가, 同一한 平坐方法에 있어서 「책상 다리, 을방자른다, 까치다리, 양반다리친다, 팽발친다, 도 사리고앉는다」 등의 여러가지 方言이 있으나, 이래서는 도 저히 教育上의 知的 傳受가 圓滿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각 外國에서는 社會政策上으로나 教育上으로 標準語制定 運動이 盛해서, 政府가 有力한 團體가 혹은 專門家들이 策定함이 盛行하여 民衆은 直接으로 間接으로 그 恩惠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義務教育에서 그 窮極目的이 標準語의 普及임은 理의 當然한바라 하겠다.

### 第三節 標準語 制定의 態度와 方法

그러면 어떠한 態度와 方法으로 이것을 制定할가 함에는 대개 다음의 세가지가 있겠으니,

- 一、論理的 態度
- 二、博物的 態度
- 三、折衷的 態度

라 하겠다. 一은 標準語를 制定함에 있어서 言語의 法則을 主 要視하여 歷史적으로 보아 文法的 正當性을 가진것을 취하는 태도이요.

二는 言語의 自由性을 認定하여 制裁를 加하는것을 罪惡視하고 모든 말은 벌서 그것으로써 각기 標準 이 된다는 것이니, 일체의 말에 同等의 權利를 주는 博 物學者的 見地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각각 一長一短이 있으나, 말을 文法과 論理로서만 拘束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케 멋

대로 放任해서도 안된다. 거기에는 適當한 合理的 選擇과 規定이 필요하여 그 無秩序한 弊害를 피할것이요, 또 他方으로 實際 使用 現象을 考慮하여, 그 人形化를 防禦하여야 될것이다. 즉 實際使用되는 山말을 土臺해서 合理的인 組織을 要하는것이다.

그러나 文法的 組織이라고 해서 山 말을 土臺하지 않고 그 論理的 公式때문에 말을 切 멋대로 만들어서 「날이 개다」를 「날이 가이다」 「소나무」를 「소오나무」 「먹었소」를 「머거쓰오」 등으로 自家의 論理를 遊戲化한다는 것은 결코 正當한 態度라 할수없다. 그것은 論理와 文法的 遊戲도 實際로 儼然히 存在하는 朝鮮말을 冒瀆하는대 不過하다.

그리고 他方으로 博物學的 見地 같이 一體의 放任으로 濫造되는 사투리를 各기 標準的으로 認定한다는것은 言語生活에 混亂을 일으킬것이다. 여기에 어떠한 體系와 組織을 要하게 되는것이니, 世間에 標準語의 眞意를 모르고 또는 綴字法의 필요를 모르고 混亂無雙한 十人十色의 語文 表記를 容認하는것은 실로 文化人의 羞耻라고 하겠다. (여기에 綴字法의 必要와 標準語의 必然性은 더 말할것 없다)

나는 이제 各國의 標準語 制定의 原則을 參考로 하여 朝鮮語 標準語 查定에 대한 態度를 잠간 밝히려고 한다.

위선 그 範疇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一、權威的 標準
- 二、地理的 標準
- 三、階級的 標準
- 四、時代的 標準
- 五、藝術的 標準
- 六、綜合的 標準

여기에 간단히 說明을 붙이면

一의 權威的 標準이라 함은 政府나 또는 學士院 翰林院의 綴字法 및 標準語 制定이 全國的으로 되는것이다. 英國에서는 官廳 乃至 半官權威가 없이 標準語가 成立한다. 그것은 그만큼 國民이 統一의 常識을 가졌으므로써이다. 그러나 우리 朝鮮에서는 도저히 個人으로는 所期한바를 거들수 없을것이니, 여러 權威가 合議하여야 할것이며 放任해두는것은 불가하다.

二는 地方的으로 대개 首府와 그 接近地 혹은 都市 例컨댄 文化中心地、政治中心、交通中心을 標準으로 삼는것이다. 그러나 首府語라고 正當하지 않은것은 피하는것이다.

三의 階級的 標準에는 宮中用語、貴族的、中流、下流等이 있겠는데, 그중에서 宮中用語는 別個의것이니 말할것없고 貴族的 標準、下流階級的 標準은 그것이 一般的이 아니므로써 不可하고 오로지 中流層 以上이 可

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림없이 一般投票는 불가하다.

四의 時代的 標準으로 보아서 너무 度에 넘친 現代語와 死語는 불가하다.

五의 藝術的 標準은 最良의 作家의 것이 標準이라고도 하나 一般的이 아닌 要素가 있고 個人의 스타일에 차이가 있다. 沙翁의 英語가 반듯이 標準英語가 아니다. 여기에는 美的 感興이 必要하다. 다른 條件보담 아름다운 語感을 標準하자는 것이다.

六의 綜合的 標準은 以上の 여러가지의 標準을 綜合的으로 採用하는 것이다.

첫째, 論理的 標準에 依하여 語法 및 綴字法을 合理化시킬 것이다.

둘째, 博物學的 標準의 態度로써 科學語, 文學語, 俗語, 卑語, 特殊語를 適宜 또는 合理的으로 選擇할 것이다.

셋째, 權威의 統制가 필요하니 變化不定의 것에 對하여는 權威있는 學會나 團體의 統制를 받아서 나아갈 것이다.

넷째 地方的 標準으로는 大개 그 나라의 中心地를 標準할 것이다. 그러나 그 中心地語가 곧 그 나라 말의 標準語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英語가 곧 런던어의 말이 아니요, 日語가 곧 江戶語가 아님과 같은 것이다. 大개 中心地는 그 出發點이 되며 參酌的이 될

따름이다. 서울말이 곧 朝鮮의 標準語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말 중에서도 능히 標準될만한 것이라야만 標準語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階級的으로는 中流 以上을 취할 것이다. 여섯째, 時代的으로는 現代語를 취할 것이로되 現代語에 없는 것은 古語를 復活시킬 수도 있고 新語를 創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곱째, 藝術的으로 우리에게 美感을 주는 것을 취할 것이며, 또 微妙한 語感의 差異도 考慮할 것이니, 「반작반작」과 「번적번적」 「반적반적」과 「번적번적」이 각각 獨立的 標準語가 될 것임과 같은 것이다.

이리하여 制定된 標準語는 실로 綜合的이다. 그것은 普通語가 中心이 되고, 거기에 文學語, 單語, 鄙語, 方言, 科學語, 其他 藝術語 등이 淨然 攝取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는 우리에게 知的 理解를 正確하게 할뿐 아니라 또 情的 表現을 豐富하게 하는 것이다.

#### 第四節 各國의 標準語 運動

文化가 進歩된 社會로써 古代 希臘을 例로 들것 같으면 希臘의 小都市의 分散的 國家이었음에도 不拘하고 多少의 枝葉的事實에 있어서는 不通한 言語도 있었지만, 그들은 同一한 言語를 使用한 것이었고 現在 發見된 碑文도 실상은 아무 差異가 없이 역

시 一種의 一般語、곧 一種의 政府 公用的 言語가 있었다는 말이며、그후에 多少의 變遷이 있었으나 마케도니아왕이 統一한 뒤로는 一般語가 더욱 盛行되어、政府 所在地에 集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各地方까지 傳達 普及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近代의 英、佛、獨、기타의 歐米 各國語는 물론이요 日本、支那、印度에서도 標準語의 問題는 實際化되어 있는 것이다。

위선 獨逸로 보아도 獨逸은 오래동안 政治上에 있어서는 小區域의 國家가 있었는고로 比較的 一般語의 發達이 늦었으나 차차 言語統一運動이 盛行되어진 것은 물론이었다。

Luther 時代前부터 Saxonia 의 法令 用語가 있어서 輿地利 其他의 官廳까지가 이것을 使用했었는데、크聖書 翻譯이 方言을 採用함보다 一般語의 選擇에 의지해서 된 結果、그 影響이 크고 스페인語를 使用하던 東部地方人들도 獨逸語를 쓰게 되고、一八七一年 伯林의 首府가 된 以來 Tanger 가 (Herrigs Archiv) 「伯林 근처 사립학교의 言語가 世間에 大하여 模範的인 獨逸語이다」라 하는 말은 伯林的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明白한 일이고 地方의 愛鄉者라든가 또는 中南部、西部地方語의 愛用者가 如何히 抗議하더라도 그건 쓸데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해서 北部와 南部의 方言은 점차로 中央에서 折衷되어 그 통일이 현저하게 되어、Victor 等の 世界的 音聲學者가 獨逸語의 標準的 發音을 主로 方言과 比較 研究하여 國民教育의 資料로 삼고 外國人에도 그것을 普及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兵隊、官吏들이 서로 使用하고 舞臺의 俳優는 模範發音이로써 舞臺獨逸語(Bühnendeutsch)에 注意하고 괴테等の 文豪의 作品이라도 不適當한 것은 避하고 一般 民衆의 模倣을 勸하고 있는 것이다。

또 Yostler 에 의지하면 古代 佛國의 文學的 作品에는 作者의 出產地보담은 社會의 地位와 職業의 影響이 컸다고 말하나 巴里를 中心으로한 標準語가 宮廷、法廷 上流及 知識階級 人士에게 普及되어 Passy와 같이 유명한 發音學者는 그것에 科學的組織을 주어 現在 佛語의 標準發音은 더욱 進展되어 가는 것이다。

다음 英語는 가장 標準語가 發達된 것이다。Morsbach 는 일찍이 指摘하기를、一三八〇年頃 以後 倫敦에서 起草된 文書는 그 後時代의 것과 同一形인데、그것이 속히 퍼져서 十五世紀頃 以後로는 地方語로 쓰인 文書는 거진 없었다 하였다。

이 一般文은 대략 최초의 用語와 一致되었던 것이다 그후 그것이 여러 都市로 퍼지는 가운데에 一般的 普遍性을 가지게 되었다。이는 倫敦 附近의 教育받은

사람들의 普通發音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英政府로서나 에리스, 스워드, 존즈, 린먼等 學者들도 역시 이것을 標準英語로 칭하고 小學校 言語教育의 義務로 결정되어 있다.

米國에서도 政府와 師範教育 乃至 專門的 英語學者 들은 역시 標準英語를 支持하고 普及에 힘쓰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愛蘭人은 英蘭本國의 同等階級보담 平均하여서 좋은 英語를 使用하고 있다는데, 標準語教育의 結果라 하겠다. 그런데 흔히 米國英語, 英國英語라 區別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科學的 意味에 있어서 正當한 認識이라 할수가 없다.

米國은 원래 英國 西部海岸 地方의 清教徒들이 第一 많이 건너갔는데, 그밖에도 各地方 各國사람이 섞여있고, 地方으로도 사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바 標準 米國語는 存在하지 않다. 米國英語를 論하는 著述家 에 이른氏의 글은 英國사람의 英語와 조금도 差가 없다. 社交上의 接觸 또는 方言으로서 全體的 標準語와 混同하는것은 물론 正當하다고 할수 없는데, 要은건대 政治上으로 教育上으로 普通英語라는것은 米國英語도 아니고 英國英語라 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역시 標準英語라고 부르는것이 當연하다.

코소리와 卷舌的母音은 地方과 個人的 習性에 不過

하고 그 有無가 米語 英語의 區別基準이 되는것도 아니며, 新單語 用法도 서로 交叉되어 國際英語로서의 運動이 일어나는것이다.

基礎英語運動이라는것은 有名한것이거니와, 最近 報 導에 의지하면 昨年 겨울에 美國 紐育에서 카비기와 록페러財團의 主催로서 有名한 英語學者를 모아서 標準英語와 國際英語에 관한 大會가 열렸는데, 토론도 大學의 웨스트씨, 엘大學의 로람씨, 콜럼비아大學의 손다이크씨等, 그리고 土耳其의 文部省 顧問으로가있는 오세트씨(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英語教育에 成功한 사람이요 教授法에도 一家의 權威를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日本의 文部省 英語教育顧問으로 와있는 와아머 씨 등이 모아서 標準語에 관한것과 國際補助語로서의 英單語 결정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英國 放送局에서는 쇼翁, 디킨즈, 브랫 드리 존즈 其他 유명한 文豪, 科學者, 語學者等으로서 標準語와 統一運動을 하며, 그로써 民衆教育을 하고 있다.

기타 各國 가운데 朝鮮에 紹介된 丁抹教育에 있어서 標準語 教育은 어떠한가. 코펜하겐大學 기타 高等教育의 關機과 그룬트비이 僧正의 設立한 庶民中學校等도 最近 五十年동안 각 方言이 서로 混化되어, 그 影響이 사투리가 가장 많은 農民層에까지 좋은 結果를 보



이게 되었는데, 각學校에서 각地方사람이 섞여 交際하는 가운데 자연히 一般 丁抹語 乃至 標準語란 것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西洋은 그만두고 東洋에서 日本의 標準語는 東京等地의 知識階級の 現代語가 文章으로 講演으로 기타 社交上으로 일체 統一化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바인데, 支那文學의 새로운 統一運動은 잠간 말할 必要가 있다. 원래 漢文글자의 難澁한 것과 言文不一致와 原始的 文法等에 의지하여 더구나 심한 方言의 不便으로 文化生活의 莫大한 障害가 되어있는바, 北京官話를 標準語로 하고 會議用語가 되려고 國音統一을 위하여 注音字母로 된 國定教科書를 普及하게 되었다. 一九一三年에 各省 蒙古, 西藏의 代表와 學者 七十九名이 北京에 會集해서 讀音統一會를 開催하고, 普通 使用의 七千一二百字의 讀音을 定하고, 그것을 法定國音으로 하는 동시에, 注音字母 三十 九個를 制定하였다. 이것은 一種의 表音文字인바, 一九一八年에는 全國 師範學校에서 그것을 傳習하고, 各省에 國語敎員을 養成하고, 十一月에 政府의 公文으로 그 使用을 全國적으로 命했

다. 一九一九년에는 國語統一의 常設機關을 두고, 漢字 一萬 三千 七百餘字의 法定國音을 定하고, 그것을 注音字母로 表示하는 「國音字典」을 編纂하고, 一九二〇年엔 全國敎育聯合會 決議로 그것을 全國에 頒布하고, 國民學校令을 改定하여서 注音字母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印度는 三億 二千萬의 土民이 있고, 志士들은 많은 文化運動을 하고 있으나, 言語 錯亂은 世界 第一이라 할 수 있다. 支那는 文字는 하나이나 印度는 梵字 亞刺比亞의 兩系統이 있어 그만 큼 複雜하다. 여러가지 事情도 있어 宗教的 軋轢과 階級層의 區別等도 原因이 되어 統一이 어려운대다가 言語가 그와같이 不統一이 되어 文化向上에 큰 損害를 보고있다. 國民議會는 印度語를 公用語로 使用하려는 運動이 猛烈한것만은 事實이다. 무엇보다도 言語統一의 急先務를 窺이 깨닫고있는 것이다.

以上에 나는 言語의 分化作用에 對立한 綜合作用으로서의 統一運動—即 標準語 現象을 말하기 위하여 東西洋의 代表的 例를 얼마간 들었다.

(朝鮮語學會 講演 筆記。 文責은 記者에 있다)

# 朝鮮語學會 主催

## 標準語查定一二讀會

### 母語運動의 歷史的會議

#### 소귀 鳳凰閣에서 五日間

○원안 수정 조선어학회에서 주최 조선 각도의 인구수 비례에 좇아

한 조신어 표준어 사정 위원회는 지난 일월 온양회의(溫陽會議)에서 케일독회를 원만히 마치고, 거기에서 뽑힌 심륙인의 수정위원(修正委員)이 그 원안(原案)을 수정하기 위하여 권후 심여차 회의를 거듭하여 원안을 권척적으로 수정을 끝내었다.

○위원 조신 케일독회 원안의 수정을 마침과 함께 케일독회를 준비하는데, 위원을 증선할 필요로, 위원 권수에 서 경기 출생과 지방 출생을 각기 절반씩으로 하는 것은 케일독회 때와 같이 하되, 지방 출생은

충청 4 전라 7 경상 8 강원 3 황해 3 평안 5 함경 4 조신 각도의 인구수 비례에 좇아 의 비례로 선출되어 모두 삼십 오 인이요, 그밖의 삼십 오인은 경기 출생으로 하다. 위원 총수는 케일독회 때의 위원에서 삼십 일인이 증가되어 모두 칠십인으로 되었으며, 또 교육계 종교계 언론기관등 각계(各界)를 망라하였으니 곧 아래와 같다. (가나다 차례)

姓名	語籍	職務
孔 濯(新)	京畿	高麗時報社
具滋玉(新)	京城	中央基督教青年會
權惠奎	京畿	中東學校
金克培	慶北	梨花女高
金東煥(新)	咸北	三千里社
金斗憲(新)	全北	佛敎專門學校
金炳濟	慶北	培材高等普通學校
金良洙(新)	全南	家事
金允經	京畿	培花女高
金昶濟	忠南	梨花女高
金泰源(新)	忠北	耶穌敎書會
金炯基	全北	敎新學校
金活蘭(新)	京畿	梨花專門學校
金熙祥(新)	京畿	開城好壽敦女高
文世榮	京城	著述
朴允進(新)	京城	佛敎專門學校
朴顯植	平南	中東學校
方信榮	京城	梨花專門學校
方鍾鉉	平北	京城帝大大學院
白樂濬(新)	平北	延禧專門學校
白象圭(新)	京城	普成專門學校
申明均	京城	中央印書館
申允局	黃海	家事
申仁植(新)	京城	天主敎堂

徐恒錫 咸南 東亞日報社  
 安碩柱(新) 京城 朝鮮日報社  
 安在鴻 京畿 著述  
 梁柱東(新) 黃海 崇實專門學校  
 廉尙燮(新) 京城 每日申報社  
 玉璿珍(新) 全南 普成專門學校  
 俞鎮午(新) 京城 普成專門學校  
 柳澄基(新) 平北 監理會總理院教育局  
 尹福榮 京城 協成普通學校  
 尹日善(新) 京城 世富蘭德醫專  
 李 鉉 京畿 東亞日報社  
 李康來 忠北 松都高等普通學校  
 李寬求(新) 京城 朝鮮中央日報社  
 李克魯 慶南 朝鮮語辭典編纂會  
 李基潤 咸南 外國語學院  
 李萬珪 江原 培花女高  
 李命七 京城 著述  
 李秉岐 全北 徽文高等普通學校  
 李世楨 京城 進明女高  
 李淑鍾 京城 京城女子商業學校  
 李沄鎔 京城 延禧專門學校  
 李源喆(新) 京城 延禧專門學校  
 李裕應(新) 京城 協成普通學校  
 李九宰 慶南 한글社  
 李鍾麟(新) 京畿 天道教會

李 鐸 京畿 定州五山高普  
 李泰俊 江原 朝鮮中央日報社  
 李軒求(新) 咸南 遞信局  
 李浩盛 京城 壽松洞公普校  
 李熙昇 京畿 梨花專門學校  
 張志暎 京城 養正高等普通學校  
 張鉉植(新) 全南 家事  
 全軻淳 京畿 基督申報社  
 鄭魯湜(新) 全南 家事  
 鄭烈模 忠北 金泉高等普通學校  
 鄭寅燮 慶南 延禧專門學校  
 趙基榮(新) 平北 天道教青年黨  
 趙容萬(新) 京城 世富蘭德醫專  
 趙鏞薰(新) 慶北 平壤正進女學校  
 趙憲泳(新) 慶北 東洋醫藥社  
 車相瓚 江原 開闢社  
 崔斗善(新) 京城 普成專門學校  
 崔鉉培 慶南 延禧專門學校  
 韓 澄 京城 家事  
 成大勳 黃海 朝鮮日報社  
 洪愛施德 京城 監理教會神學校

후 사시 삼십분에 위원 일동은 안  
 동 비거리 한성도서주식회사에 집합  
 하여 동 오시에 고양군 송인면 우  
 이동(高陽郡 崇仁面 牛耳洞)으로 향  
 하여 출발하다.

○제이독회 개최 팔월 오일 오친  
 팔시 오십분부터 소귀(牛耳洞) 봉황  
 각(鳳凰閣)에서 표준어사정위원회 제  
 이독회가 열리었다. 임시의장 이희승  
 (李熙昇)씨가 승석하여

「조선어 표준어사정은 조선어 사  
 권(辭典) 편찬의 전제사업(前提事  
 業)이 되는 가장 중대성을 가진  
 것으로, 금년 일월 온양회의(溫陽  
 會議)에서 그 위원회의 제일독회  
 를 개최한 이래 경성에서 누차 회  
 합하여 계속 심의하였고, 이번 이  
 독회에서는 최종적 결정을 하겠으  
 므로 가장 신중히 토의하여야 하  
 겠다」

는 의미를 말하고 표준어 정의의  
 간단히 설명하여 개최선언을 이로  
 부터 마친후, 의장의 자백으로 신운국

(申允局) 김양수(金良洙) 이극로(李克魯) 삼씨를 권衡위원(詮衡委員)으로 선거하여 아래와 같이 의장(議長)과 기록(記錄)을 청하다.

의장 이종린(李鍾麟) 김창케(金昶濟) 김희상(金熙祥) 이희승(李熙昇)

기록 방종현(方鍾鉉) 이태준(李泰俊) 김병케(金炳濟) 김형기(金炯基)

이어서 이운재(李允宰)씨가 이번에 수정된 원안(原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었다.

「중앙회의에서 통과된 원안으로 수정위원들은 그새 심의차나 회의록 거듭하여 표준어 어휘(語彙)에서 누락된것은 보충하고 중복된것은 추려내어 권척적으로 정리하여도 의상 편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십 칠항목으로 나누었으니

- 一、母音 變化에 關係된 말
- 二、子音 變化에 關係된 말
- 三、된소리에 關係된 말

- 四、첫 말이 같은 말
- 五、끝 말이 같은 말
- 六、말 끝이 變換한 말
- 七、첫 소리가 같은 말
- 八、母音이 더하고 減에 關係된 말
- 九、子音이 더하고 減에 關係된 말
- 一〇、音節이 더하고 減에 關係된 말
- 一一、語音이 別箇的으로 된 말
- 一二、略된 말
- 一三、同音異意의 말
- 一四、漢字語 轉音에 關係된 말
- 一五、語意가 各立으로 된 말
- 一六、一讀會에서 保留된것
- 一七、한글 맞춤법 통일안 附錄의 標準語

등이다. 이중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부록의 표준어는 조선어학회에서 연 권에 맞춤법을 제정할 때에 다만 맞춤법에 관계되는 표준어 몇만 들 어 통일안 끝에 부록으로 붙여두었 을뿐이요, 제일회 때에는 거기에 있 는 어휘는 권척 놓지 않기로 하였으 나, 지금 표준어 권척을 토의하는 마 당에 있어서 그것만 따두 빼어놓을

수 없게 되는고로, 본회 회원 권척 에 의견의 불일치바, 한사람도 이 의가 없이 그것을 토의에 붙이는 것 이 옳다고 하였는고로 이득회에 이 것을상정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이 원안에 수집되어 있는 어휘는

- 一、표준어 어휘 一千 五百 五十語
- 二、각립된 어휘 三百 十四語
- 三、보류된 어휘 九十 四語
- 四、통일안 부록 어휘 一百 三十八語

합계 二千 九十 六語

가 되는데, 이것을 그상대되는 말의 어휘까지 친다면 총계 四千 四十七 語가 된다」

회의 시간은 매일 오전 칠시부터 팔시까지와 동 삼시부터 오후 일시 까지와 동 삼시부터 칠시까지 세번 씩 모이기로 하다.

의상 사인이 돌러가며 사회하여 의사를 진행하다.

○수정위원 선거 케이득회의 토 의가 순조로 진행하여 개회한지 케 오일재 되는 팔월 구일 오전에 이

르러 원안 권부를 통과하였다. 이것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수정위원을 선거하여 이번에 통과된 원안의 정리할 일체 사무를 맡기기로 하고, 권형위원으로서 수정위원 이십 오인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수정위원 (가나다 차대)

金東煥 金良洙 金允經 金昶濟 金炯基  
 金熙祥 文世榮 方鍾鉉 申允局 安在鴻  
 尹福榮 李克魯 李基潤 李萬珪 李淑鍾  
 李允宰 李鍾麟 李浩盛 李熙昇 鄭魯湜  
 趙基萊 趙憲泳 崔鉉培 韓澄 洪愛施德  
 수정위원의 권한에 대하여는 이번 이독회에 통과된 어휘중 오류된 것이나 모순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정위원으로서 그것을 일일이 수보(修補)할 것과 이것을 다시 권체적으로 체계(體系)를 세워서 일반 사회에 공포하기까지의 정리를 행할 것이며, 혹 필요한 때에는 다시 제삼독회(第三讀會)를 열어서라도 더욱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 함을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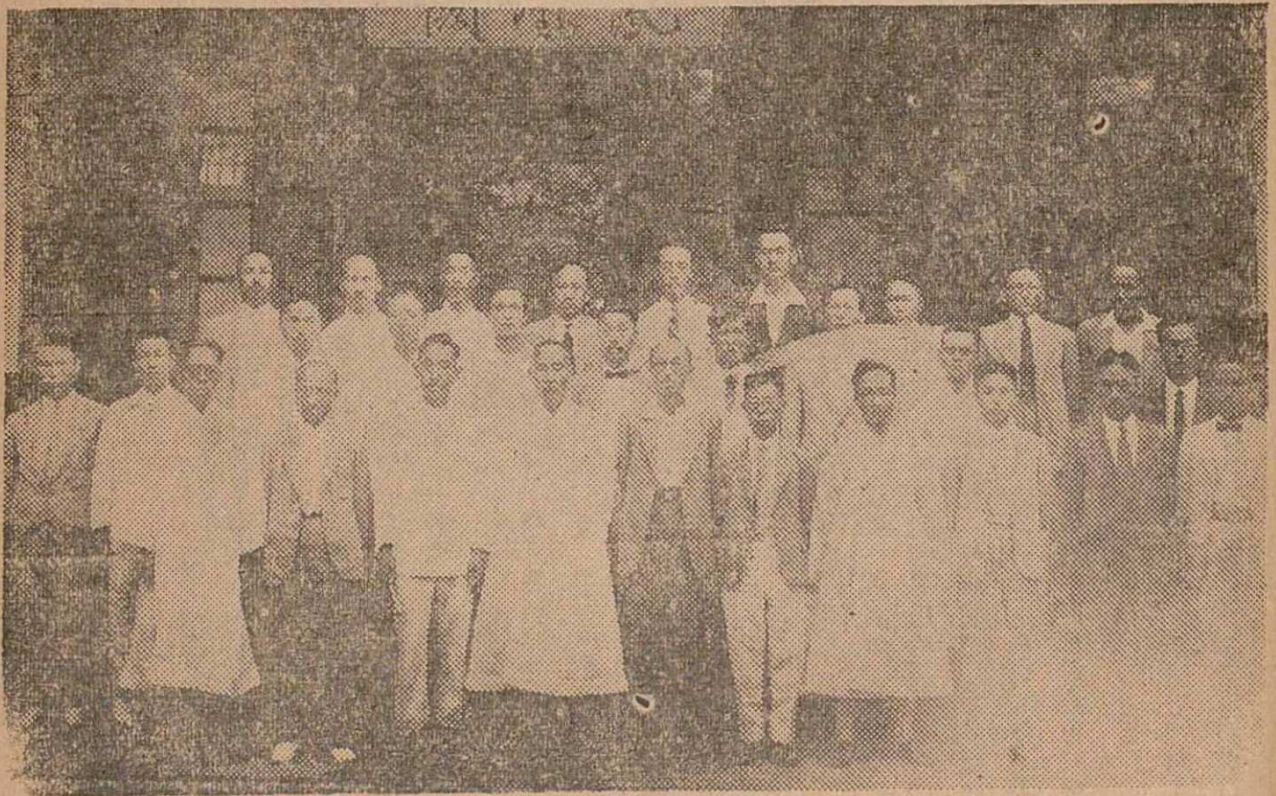
하다.

### ○감사할 일

이번 회의에 비용을 전담하신 한상억(韓相億) 박사 김도연(金度演) 박사 김도연(金度演) 박사 두 분과 회의 장소를 빌려 주신 천도교회(天道教會)와 여려방면으로 원조하여 주신 인사에게 감사한 뜻으로 사장(謝狀)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일동은 박수로써 감사하는 뜻을 표하다.

### ○폐회 이와 같

이 사무 처리까지 다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위원 일동은 일체히 일어서서 의장 이희승 씨의 발성으로 「만



이제독회들 고치마 는오아들 준표어사정회 위원들

세!」 삼창으로 킨도의 성공을 축하  
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진 십일시  
삼십분에 회회하다.

### ○축사와 독립문 표준어 사정

이득회에 대하여 조선어학회 회원  
이외에 「春川 一學徒」의 명의로 축  
사 편지가 있었고, 항주 송주성(宋  
柱星)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독립문  
(督勵文)이 왔다.

一、查定の 精神上

一、특히 協調的 精神으로 當할것

二、語文의 文化發達 及 重要性과 우리

말의 貴性을 再認識할것

三、純然한 조선말을 살리고 빛내어야

될것

四、標準말이 되지 못할 제 地方 사투

리만 옳다고 固執함으로 地方別 色

彩를 나타내지 말일

二、查定の 方法上

一、漢字音으로 오는 조선말은 查定 範

圍에 넣지 말일. 그러나 아주 조선

말化한것을 此限에 不在...영웅(英

雄)학교(學校)는 조선말인것

三、純全한 조선말로서 두가지 語音中

그 한가지를 뽑을 때는 되도록 順調  
로운 편을 取할것. 아주(조) 모두(도)  
그러나 자미는 재미가 좋음. (實地  
語音을 尊重함으로써 本項과 같은 別  
個問題)

二、되도록 朝鮮語學會 專門家 諸氏의

案을 좇을것

또 「一督生」이란 명의로 아래와 같

은 독립문이 왔다.

「여러 先生의 努力을 感謝합니다. 한

말씀 올리움은 공을 위한 正義를 沒

却하고 私를 위한 地方的 色彩와 猜忌

憎惡 軋轢 破壞를 ○是로 하는 朝鮮社

會에 있어서의 道적의 假面을 쓰고 조

선인의 歷史的 遺物인 黨派 鬭爭의 正

體인 ○○○○의 行動 態度란 少毫라

도 품지 말고 相互協調 讓步를 查定

의 精神으로 삼아야 될것. 朝鮮語學會  
萬萬歲!

### ○신문 사설 표준어 사정

케이득  
회에 대하여 특히 조선일보의 사설  
(社說)이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朝鮮日報 第五千一百號 社說

### 標準語查定の 意義

●●●●●●●●●●  
查定委員 第二讀會에 際하여

一

朝鮮語學會가 去年 十月에 「한글 맞춤  
법 統一案」을 發表하여 朝鮮語文運動과  
맞 이것을 中心으로한 朝鮮 文化運動에  
一大 劃期的인 新機關을 짓게 하였고, 다  
음 第二段策으로 標準語를 查定하려고計  
畫하여, 去 一月에 四十餘名의 委員 諸氏  
가 溫陽溫泉서 第一讀會를 마친것은 吾  
人의 記憶에 새로운바, 그동안 修正과 補  
充을 마치고, 今 五일부터 五日間 牛耳  
洞에서 七十名의 委員이 會合하여 第二  
讀會를 열고 草案을 再審查하게 되었다  
고 한다. 이 第二讀會의 成果는 事前的  
일이라, 未知數이라 할지니, 이 草案의 再  
審查가 圓滿히 終了되면 標準語 查定은  
이로써 第一期를 마치고 朝鮮語 統一의  
基礎는 이에 完成될터이니, 이야말로 劃  
期的 壯舉라고 아니할수 없는 同時에 그  
意義는 重大하다고 아니할수 없다. 朝  
鮮을 爲하여 깊이 慶賀하는바이다.

二

사람의 發想形式은 여러가지나, 그 가  
장 重要하고 가장 發達된 形式이 言語

와 이 言語를 符號로 記錄하는 文字인  
은 贅言할 必要가 없다. 우리는 이 言  
語 文字로 因하여 우리의 思想과 感情  
을 發表하는 것이니, 그 語文으로써 自己  
의 意思를 다른이에게 傳達하고 남의 意  
思를 내가 體得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集  
團的 乃至 社會的 生活에 있어서 語文  
의 統一이 如何히 必要한 것을 可히 알  
수 있으며, 모든 文化發達의 基本이 여  
기에 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民族文化 建設의 大志를 품고 그 壯途의  
一步를 걸기 始作한 우리에게는 지금에  
이보다 더 切實한 要求는 없을 것이다.  
況 現今의 우리들이 語文의 不統一로 因  
하여 不便을 朝夕으로 痛感하고 있으며,  
이것이 文化 發展上 大支障이 되어 있는  
것을 目前에 보고 있음에야 그 緊急을  
嗚嗚할 必要가 있으랴. 標準語查定은 朝  
鮮 現實의 切實한 要求에 應하는 것인 同  
時에 時宜를 얻은 大事業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三

그러나 한 말로 標準語 查定이라 하  
여도 이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요 또는  
輕忽히 處理할 것도 아님은 勿論이다. 우

로 數千年的 歷史를 가지고 數로서 二  
千餘萬을 세이는 民族의 言語를 密査하  
야 標準語를 查定하려는 것이어든 茶飯事  
같이 容易할 수도 없거니와, 萬若에 一失  
이라도 있었다 할진댄 累를 百代에 디  
치게 하여 數千萬人에게 不便을 남기는 結  
果가 될 것이다. 朝鮮語學會의 計劃이 昨  
今年的 일이 아니요, 多年이 準備에 盡  
瘁해 온 것을 들은지라, 그 蒐集과 準備  
에 不足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고 또  
委員 諸氏는 斯界의 專門家와 各界의 該  
博한 知識을 가진 學者 여러분들이라하  
매, 그 銳利한 批判과 公正 慎重한 態  
도로써 查定에 臨하여 萬無一失의 成果  
를 나타낼 줄 믿거니와, 委員 諸位는 自  
己의 意見이 二千萬人의 意見을 代表하  
는 것이라는 責任을 깊이 느끼고, 그 意  
向을 體하여 從私忘公하는 일이 없도록  
特히 公正과 慎重을 期하여 써 全社會  
的 期待에 어김이 없기를 待望하여 마지  
않는다.

四

끝으로 이와 같이 해서 標準語 查定을  
마쳤나 하더라도 一般 社會에 이에 對  
한 支持가 없이는 이 事業의 完成을 期

待할 수는 없는 것이다. 查定은 委員會가  
한다 하더라도 그 查定된 標準語를 標  
準語되게 하는 것은 一般 社會가 그 標  
準語를 使用함으로써 비로소 目的을 達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 舉族의 大  
事業의 完成을 爲하여 小異를 버리고 大  
同에 따르며, 적은 私的 不滿을 抑制하고  
朝鮮語文 統一을 爲하여 오직 뜻을 같  
이하며 實行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各自가 다 함께 하지 아  
닐지 못할 일을 專門研究家 諸氏가 代身  
時間과 精力을 傾注하여 奮闘 研究한 功  
을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支  
持와 呼應으로써 이를 맞아서 民族文化  
運動의 劃期的 大事業을 完成하여야 할  
것이다. 第二讀會가 큰 收穫을 거두기를  
비는 同時에 社會 全體의 積極的 支持  
가 있기를 아울러 바라는 바이다.



글

월

이것은 김용운(金龍雲)군이 이윤재씨에게 보낸 글월이다. 김군은 지금 중등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 한글 연구에 특재가 있다. 이 글월의 한 마디 마디도 그가 한글을 위하여 얼마나 정력을 쓰는 것을 엿볼수 있다.

신생님

날이 몹시 가늘어 농부들의 하늘을 원망하는 소리 귀가 시끄럽습니다. 신생님 앞을 둘러나온케도 이 미달이 넘었사오나, 일즉이 한번도 문후를 드리지 못하와 복민한 마음 금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방학후 즉시 귀향하여 농촌 한 구석에서 글읽고 산에 오르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글에 대하여 궁구할만한 시간이 많아진 것이 기쁩니다.

밤이 되면 정자 밑에 모인 농부들과 함께 앉아 재미 많은 농촌야화(農村夜話)에 잠겼을 때에 커는 슬

### 독자의 소리

이欄에는 讀者 諸氏로서 어떠한 意見이든지 다 發表할수 있습니다. 提議나 反論이나 무엇이든지 써 보내시오.

### 字母의 이름을 보고

(김관남씨의 研究文에 贊成함)

金昌禹

半萬年の 歴史를 가진 우리인만큼 言語도 극히 發達을 보이고 있으나, 오직 統一과 整頓 못된것만이 一大羞恥라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한글」을 손에 잡을 때마다 理想的研究論이나 揭載되지 않았나 하고 마음을 달리었던것이다. 이것이 「字母의 이름」이란 題目을 重視熟讀하게 된 所以이다. 내가 본 長點을 左記하면 一、在來式的 非規則的이 아니요, 그 二 드 르 ……의 調和音으로 整頓된것.

二、今後 如何한 變바침이든지 一律로 命名하게 되는것.

三、初終의 作用을 表示하고 있는것.

四、學習上으로 보아서 아주 便易한 것等이다.

다음에 缺點으로 본다면, 各自의 習熟이 아닌만큼 첫입에 맞지 않다고 본다면 볼뿐이다. 그러나 새말이 첫입에 맞지 않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 다. 처음 배우는자로 있어서는 「기역, 시시옷, 하기보다」 「기그음, 「니」는은 이 띄어나 容易할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目下事業에만 限한것이 라면 이다지 떠들 必要가 없는것이 다. 以上으로 보아 나는 紙面을 빌려 感謝를 마지 않으며 더욱 努力하여주시기를 비는 同時에 「無用의 論을 삼가라」는 申瑛澈氏의 反駁하기爲한 反駁文에 言及하고자 한다. 自意에 適合하니 하는 말이 아니요 異口同聲으로 多數의 共鳴을 보았다. 氏의 말한바 「公明正大」한 立場에서 實際를 實際대로 正視한이는 同感아



거머니 그네들의 방언(方言)을 엿보  
고 있습니다. 농촌에 돌아와 보온죽  
서을 있을 때에 뜻하지 못하던 여  
러 난관이 많사오며, 여러가지 불만  
과 애석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틈  
만 있으면 커는 농부들 앞으로 달  
려갑니다. 그이들은 무한히 어둡고  
마음이 협소합니다. 커의 이야기는  
언케든지 간단한 세계의 청세와 우  
리 자각에 관련된 무엇이라고 할가  
요. 그중에도 한글 통일에 대한 말이  
적지 않지요. 그들은 우리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그네들도 하  
여금 우리글을 사랑하고 우리글을  
힘써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가요.

선생님, 구월이나 뵈옵겠습니다.  
내내 안녕하심을 비옵고 이만 그  
칩니다.

팔월 십륙일

친북 의산에서

김용환 상서

님이 없으리라 믿는다.

氏여! 熟讀하였는가. 「기」기역의  
初聲이 「기」요, 終聲이 「역」이라는대  
가 어디 있든가. 단지 初學者가 그렇  
게 한다는 것뿐이다. 再問하노니 家庭  
教授라도 하려본 일이 있는가. 「기」와  
「그」가 初聲아님은 勿論이다. 初學  
者가 「初聲」이란 所謂「입밖」에 내지  
못한다」는 初聲을 알수 있는가. 近  
似音 「그」도 勿 誘導하자 함이 不適  
한가. 「기」와 「아」는 兼行性이 強하  
나, 「그」와 「아」는 「그」字 自體가 調  
和音이기때문에 加速的으로 反復할 때  
容易히 「가」음을 내게 되고 마지 않  
는가. 氏는 「(기역)」이라 하나, 「  
(그음)」이라 하나 一律 같다고 하였으  
니, 그렇다면 一律로 整頓하여 舊殼  
을 脫할 必要가 없는가. 「(구역)」  
이라 하든지 ㅅ(사옷)이라 하든지  
종단 말인가. 그렇다면 當初부터 研  
究、整頓、統一等이 必要가 없을것이  
다. 歷史的 習熟이란 文句로 彌縫하  
였지만, 그렇다면 在來式 讚美를 意

味함이 아닌가. 「기」, 「비」等은 두개 당  
소리니, 당소리 이를대로 「기」기역이  
라 불려도 좋고, 쌍기역이라 하여도  
便利하지 않는가 하였으니, 「비」等은  
쌍시옷이라 할가. 또 이름부들 必要  
가 없다 하였으니, 이름 없는 어느 나  
라의 字母를 보았는가. 無名함이 使  
用上에 便易하다는 것인가. 「貴重한 한  
글 紙面을 없애는 것은 天下 同志와  
가치 슬퍼한다」, 「無意味하다고 一  
蹴한다」等의 美文으로 그다지 紙面  
을 愛重함은 大病에 分餘의 藥價를  
아낌과 一般이요, 讀者欄의 存在를  
滅殺코쳐 함이 아닌가.

때가 때인만큼 新綴字 反對論이  
아니어든 輕論을 弄하는 것보다 寸文  
의 그것일지라도 發表하는 이가 많기  
를 苦待한다. 모든 것이 變하여도 眞  
理는 眞理대로 빛날 것이요, 反對者가  
있음에도 나날이 자라고 있는 한글  
社會의 正眼이 正評을 나릴 것이다.

한글 연구 圖書 解題 (6) 方鍾鉉

五洲衍文長箋散稿 六拾冊

이 책은 憲宗時人 李圭景 그 字는 伯揆요 그 號를 五洲 或은 嘯雲이라고 하는이의 著作한 六拾책이나 되는 大著로서, 各方面 大小事를 通하여 그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것과 疑訝하다고 문체삼는것을一切 列學하여 辨證할것이니, 卷一로부터 卷六十까지의 그 內容 題目이 그 어느것이나 모두 그 끝 三字를 辨證說이라고 結尾한것으로 보아 알수 있는것이다. 例하면 諺文辨證說 草書辨證說 押書辨證說 하는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것은 이 책 全體에 通한 文法이 아니고 다만 우리말에 關한 部分 다시 말하면 諺文이니 反切이니 方言이니 하는 部分을 들어서 이 책의 價値를 찾아보려고 하는것이다. 물론 이 책의 必要件은 各方面일것ियो, 그 使用된 範圍도 廣大한것이다. 이 책 方言을 表示하는 形式을 보면 漢字나 훈음은 유리 글자의 두가지로써 記하였으니 例하면 아래와 같다.

- 方言以一數爲漢兒……………(卷一)
- 半夏——氣無老……………(卷二)
- 豺曰昇良伊……………(卷三)
- 蟋蟀東俗名貴突岩伊……………(卷七)

蟻蝨我東俗茅毒伊……………(卷七)

山鵲俗名語焉、焉雉、家雉……………(卷九)

野蒜 들랑이……………(卷二十四)

胡荽 고시……………(卷二十四)

蒿草 다복속……………(卷三十五)

山蔘 더덕……………(卷三十五)

薺著 겨루기……………(卷三十五)

連枷 도리끼……………(卷三十七)

以上에 例로 든것은 이 책 方言 가운데에서 그一部分만을 뽑아내인 몇마디에 不過한것이다. 農具의 名稱과 馬名의 諺解와 그 밖에 이 六十卷冊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散在한 方言은 실로 그 수가 많은것이니, 濟衆新編、農家集成、稽經、鷄林類事、村家方、鄉藥採取月令들과 같은 책에서도 以上에 列學된 말은 찾아볼수 있는것으로서 다 같이 그 表示方法을 參考하는데에 크게 必要한 資料인것이다.

다음에 諺文辨證說(卷二十八)을 보면、

諺文即我 世宗朝出自聖意以圓籌縱橫作字乃命申叔舟入遼東 按 皇明翰林黃贊適遼東 申相叔舟十三度往來質問定其字母及初中終與四聲以翻萬物難狀之音蓋以反切合而成字凡六千三百四十文寔天地之奇文也……………

이와 같이 우리 文字의 起原에 關하여 이것을 圓籌에 붙여서 말한것은 에갈드가 조선 글자는 그문(文)

에서 全部 찾아내일수 있는 文字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그 內意가 이 글이 創作되었다는 것과 이 글이 가장 쉽다는 것을 通俗的으로 表示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에도 다시

此書雖至愚下賤一覽輒解可謂通俗之至……

라고 하여 우리 글이 제일 쉬운 것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反切翻紐辨證說(卷三十三에 보면、

我東則以 世宗御製訓民正音爲

翻切 俗以諺爲諺文反切讀反爲背反之反不知反切之反音翻也呼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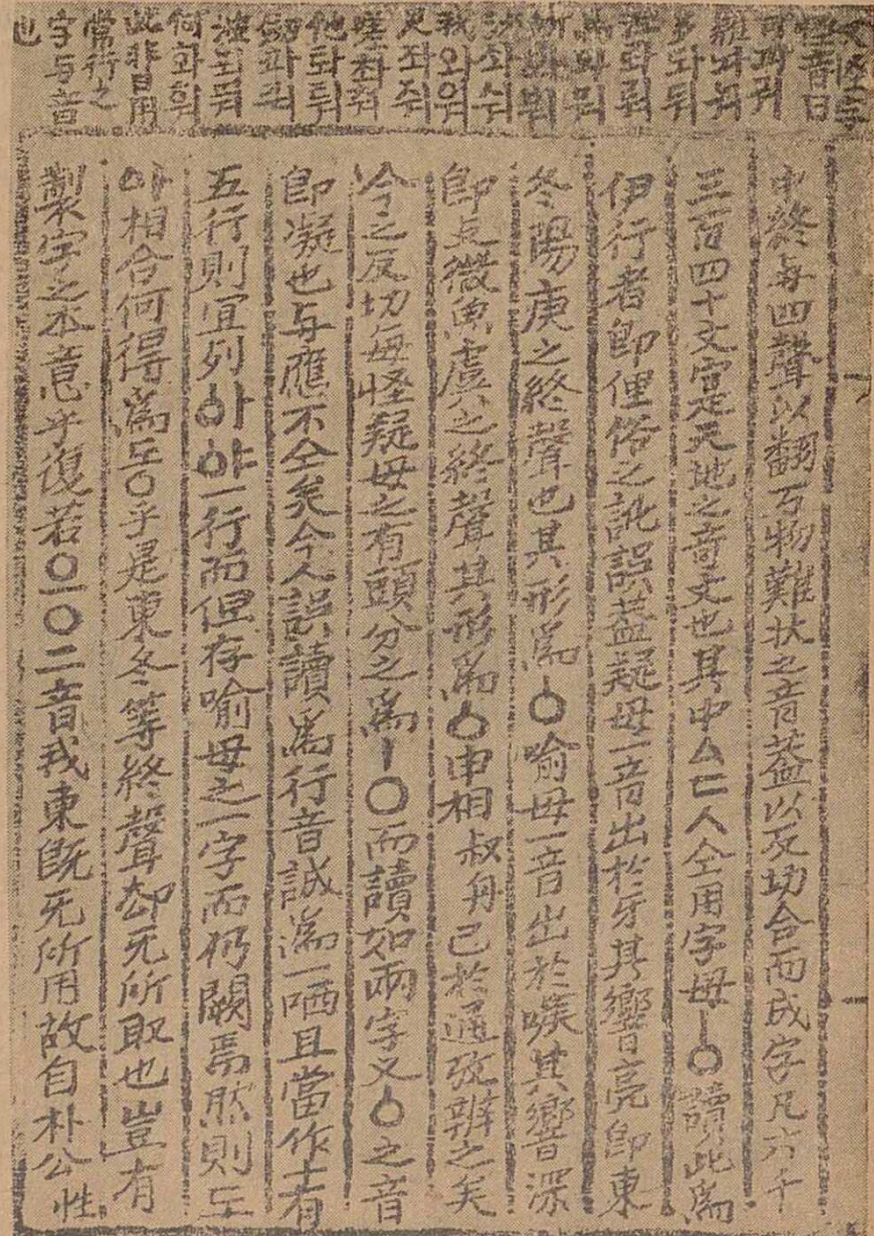
以翻切 爲正也 世傳 莊憲大王嘗御圍以

圓籌排列忽悟解 命成三問等創

製云……

이라고 하여 反切에서 이 글 全體를 論한 것은 漢字의 反切에서 나온 것이다.

現存된 이 책은 去年 朝鮮語學會 展覽會에 出品된 崔南善氏 所藏本과 그것을 寫出한 京城大學圖書館本이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寫眞說明 五洲衍文長箋散稿 卷二十八 第二十八 三葉(諺文

辯證說中) 인데, 크기는 卞 原本 그대로 한 것이니, 長이 十

三센치, 廣이 九센치로 六十冊 全部가 卞 같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것은 著者 李圭景의 親筆로 더욱 貴重한 것이다.

이 原本이 現今 一覽閣(崔南善氏 文庫)에 있는데, 다만 一冊이 缺本되어 다시 얻기 어려운 것은 더할수 없는遺憾이다.

指 導 例

(12)

京城師範學校 沈宜麟

一、教材 친칠한 商店 (普通學校朝鮮語讀本卷二, 十八)

二、要旨 本文을 讀解시키는 同時에 商店에서 賣買

하는 모양과, 商人의 道德으로 親切 正直이 가장

美德인것을 알림에 있다.

三、教材觀 이 教材는 職業指導의 教材로 본다.

即 商店의 賣買하는 모양이며, 商人의 道德으로 가

장 必要한 손님에게 對한 親切 正直의 德을 알

려야 한다. 商店으로서 信用을 얻고 못 얻는 것이며

繁昌하야 가고 못하야 가는 것은 모다가 이 店員의

親切 正直 如何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商人中에

는 或 目前의 利益만 取할 생각으로 巧妙한 手

段을 用치 正正치 못한 짓을 하는 자도 잇스며,

또는 손님이 物件을 만이 사고 아니 삼을 말아

서 親切히하고 不親切하게 하는等, 差別的 態度를

가진 자도 잇스나, 이와같은 자는 모다 큰 成功을 얻

지 못할 것이오 반드시 失敗에 마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우리 社會에는 이와같은 弊習을 가진 자

적지 않은 것 같다. 競爭이 甚한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親切과 正直을 가지고 손님을 만이 고는 자가 이길 것이다. 그럼으로 本課의 指導는 文을 讀解시킴을 말아, 親切 正直한 美德을 보반게 하야 商人의 道德을 알림에 中心을 둘 것이다.

1、文... 作者가, 었던 商店에서 物件을 팔 때에 손님에게 對한 態度가 언케든지 親切 正直한 것을 보고, 感心되어 賣買할 때에 모양을 한 例로 쓴 글이다.

2、節意

第一節、수치를 팔 때에 손님에게 親切히하는 모양,

손님 보고 얼른 나신 것.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 물건을 조의에 잘 차서 준 것.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 하며 공손히 禮를 한 것.

第二節、큰 대야를 사려온 손님에게 팔지도 못하며 親切하게 하는 모양.

「미안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손님을 무까지 친속한 것. 「참, 안되었습시다」 하고 공손히 禮를 한 것.

第三節、이 商店은 누구에게든지 親切 正直하야 손님이 고칠 때가 업는 것. 사가는 손님 안 사가는 손님에게 다 한결같치 친칠 공손한 대접.

다음이 正直。에누리가 업는것。항상 손님이 고칠 때가 업는것。

3、語句……商店、손님、店員、얼른、나서며、速하게、사시랴닛가、수저、한벌、값、공손히、미안합니다、팔려습니다。친송、못처럼、한결같치、친절、대접、뵈、正直、에누리、항상、고칠때。

4、新出字……(漢字)商、店、員、錢、禮、正、直(諺文) 값、맡、값、릴、결、친、뵈、직、칠。

5、綴字의發音……얼른、값을、받으며、팔렸습니다、두벌、친송、正直、항상。

6、補充語……유기、철불、철사、석쇠、부삽、양동이、화로、풍토、주전자、툼、다리미、인두。

#### 四、時間配當 (四時間 取扱)

第一時 全文의 읽는法과、大意를 取할것。

第二時 節意의 吟味와、文意의 確認。

第三時 已授의 練習과 綴字의 取扱。

第四時 總練習과、應用練習。

#### 五、準備 讀本의 掛圖

#### 六、指導實際

##### 第一時 指導豫定

(一) 主眼點 全文 通讀、新字의 取扱、大意를 解케 하야 內容의 大略을 問答함。

#### (二) 指導過程

一、本文의 通讀과、大意의 發表。

1、自由讀(二三回返復)……책들 다 펴노아라……(책을 펴노케 한다。)

오늘은 어디를 배울 차례냐?

비、「十八 친절한 商店」을 배울 터입니다……(題目을 板書한다。)

자、그러면 이課를 다들 잘 읽

어보아라。읽으면서 모를데가 잇거든、잘 표하야두

엇다가 못는다。또 이 글속에는 무슨 말이 셋는

지 잘 생각하야가며 읽어라。……(微音讀을 시키고

指導者는 機間을 巡視하며 個人을 指導한다。)

2、新出文字의 指導……자、책들 노코 읽을줄 모를

데가 잇거든 물어라。(質問에 應하야 新字를 板

書하고、그 讀法과 寫法의 指導。만일 質問이 업

슬 때는 指導者가 發問한다)

3、指名讀(三四回)……자、누가 한번 읽기니? 읽을

사람……(舉手) 너 읽어보아라……(讀調와 發音의

訂正)

4、範讀(二回)……내가 한번 읽을터이니、다 자세히

들 보고、나중에 무슨 말이 셋는지 말하야 본

다……(指導者는 發音과 讀調를 正確明瞭하게하야

읽어들리고、同時에 兒童은 속으로 말아읽으며 大

意를 생각한다)

5、大意의 發表……(다 各各 생긴한 大意를 發表 시키본다。)

자, 이 글은 무슨 이야기를 쓴 글이냐? 무슨 말이 셋는지 말하야 보아라. 누가 할 사람?……(舉手)

너 말하야 보아라.……(指名發表) (친절한 商店 이야기라든지, 또는 손님한테 친절하고 正直하게 하는 商店 이야기라든지, 여러가지 對答이 잇슬것이다. 그러나 이 여러가지 對答에 對하야 缺點을 말하지 말고, 모다 조라고 칭찬한 뒤에 가장 適切한 對答을 뽑아서 第一 조은 對答이라고 板書하야 칭찬할것이다)

잘했다. 더 잘할 사람.……(舉手) 참 잘했다. 그때 네가 한 말이 케일 조라.

二、內容에 對한 大意問答

題目에 무엇이라고 썼니?

친절한 商店이라고 썼습니다.

商店은 무엇을 하는데냐?……(掛圖提示)

물건을 파는데올시다.

이 商店은 어떤 물건을 파는데냐?

여러가지 유괴며 칠물을 파는데올시다.

이것은 무엇이냐?……(掛圖를 가리키며 補充語를 指導한다)

물건 사러오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니?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누가 손님이냐?

저 모자 쓰고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올시다.

商店에서 물건파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니?

商人, 店員이라고 합니다.

엇던것이 店員이냐?

저 안쪽에 동키고리 바람으로 잇는 사람이올시다.

이 商店에 첫번 온 손님은 무엇을 사가지고 갔니?

수커 두벌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얼마에 사가지고 갔니?

한벌에 三十五錢씩 주고 사갔습니다.

店員은 그 손님을 엿더케 대접하얏니?

친절하게 대접하얏습니다.

그 손님이 商店에 들어올 때에 店員은 엿더케 하얏니?

얼른 나서며 「무엇을 사시랍닛가」하고 불었습니

다.

또 수커 두벌만 팔라고 할 때에 店員은 무엇이

라고 하얏니?

「고맙습니다」라고 하얏습니다.

또 손님에게 불건을 엿더케 주었니?

조의에 잘 차서 주었습니다.

손님이 나갈 때는 엿더케 하였니?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하며, 공손히 禮를 하  
았습니다.

들쭉번 손님은 무엇을 사러 왔었니?

큰 대야를 사러 왔습니다.

손님에게 보인 대야는 엿던 것이냐.

三十錢짜리와 三十五錢짜리를 내놓았습니다.

손님은 그것을 샀니?

아니올시다. 더 큰것을 찾었습니다.

그러면 店員은 무엇이라고 하였니?

「미안합니다 다 팔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손님이 갈 때는 엿더케 하였니?

나가는 손님을 문까지 친송하며 「모처럼 오셨는  
데 참 안되었습니다」하고 공손히 禮를 하습  
니다.

이 商店의 店員은 엿더한 사람으로 여기니?

친절하고 공손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商店에서 사가는 손님한테만 친절하  
게 하니?

아니올시다. 사가는 손님에게나 아니 사가는 손  
님에게나 다 한결같이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접

합니다.

또 이 商店에서 그 외에 엿던 조은 일이 있  
니?

正直하야 에누리를 아니합니다.

이런 친절하고 正直한 商店은 엿던 조은 일이 있  
니?

항상 손님이 고칠 때가 업시 만이 읍니다.

三、板書事項 及 新出字의 讀法 練習

자, 이 칠판에 쓴것을 다 같이 읽어보자……(齊讀)

### 第二時 指導豫定

(一) 主眼點 本文을 熟讀玩味하야, 節意의 取扱과 文

意를 確認시키고 商人으로 正直 親切한것이 무엇  
보다 美德이라는것을 認識케 한다.

一、豫備問題

요컨 時間에는 어디를 배웠니?

「十八 친절한 商店」을 배웠습니다.

二、指名讀(二三人)

누가 한번 잘 읽었니?……(讀調와 發音에 注意)  
잘못 읽은데 업니?

「……자를 잘못 읽었습니다.……말음을 틀렸습니다  
다. 썩적이고 동구랭이 한테를 떼시 아니하셨습니다  
다. 너무 재게(빠르게) 읽었습니다」等 對答을 할

것이다.

三、節意의 取扱

1、節을 定하는 法

자 이 글은 몇칠로 나누었스면 조켓는지 속으로 읽어보고 아리켜내라……(默讀指導者 机間巡視)

자, 안 사람은 몇칠에 나누었니……(舉手)……여러

가지로 節을 나눌것이다. 그중에 三節로 나눈다는

對答을 살려서 教授를 進行할것이다.

2、節意의 吟味

「第一節의 取扱」

그러면 첫젯질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四十四페이지 다첫젯질부터 四十七페이지 들젯질까지

을시다.

어디 한번 누가 읽어보아라……(指名讀)

자, 그러면 첫젯질에는 무슨 말이 셋니?……(여

러가지 對答이 잇슬것이다. 그중에 다음과 같은 對

答을 板書한다)

「店員이 수치를 팔적에 손님한테 친절하게 한일

이 兪잇습니다。」

무엇을 보고 친절하게 한줄 아니? (對答을 말아

板書)

손님을 보고 얼른 나친것.

고맙습니다하고 감사하게 여긴것.

블건을 조의에 잘차서 준것.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 하며 공손히 禮를 한것

「第二節의 取扱」

들젯질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四十七페이지 셋젯질부터 四十九페이지 끝으로 들젯

질까지을시다.

누가 한번 들젯질을 읽어보자……(指名讀)

자, 이 질속에는 무슨 말이 兪잇니? (適當한 對

答을 板書)

「큰 대야를 사려온 손님에게 팔지도 못하면서 친

절하게 한것이 셋습니다。」

엇재서 친절하줄을 아니?……(對答을 말아 板書)

「미안합니다. 다 팔렸습습니다。」

손님을 문까지 引송한것.

참 안되엿습니다 하고 공손히 禮를 한것。」

「第三節의 取扱」

그 다음 셋젯질은 어디까지냐?

그 다음부터 끝까지을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자……(指名)

자, 이 질에는 무슨 말이 셋니? (適當한 對答을

板書)

「이 商店은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正直하야 손

님이 고칠 때가 업습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썼니? (對答을 말아 板書)

「사가는 손님 안 사가는 손님에게, 다 한결같치 친절하고 공손한것. 마음이 正直하야 예누리가 업는것. 항상 손님이 고칠 때가 업는것.」

四、文意의 確認

1、各節에 나란한 文意……一節、二節、三節을 보면

모다 商店에서 엿더케 한다는 말이 썼니? (指名)

店員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말이올시다.

2、作者의 吟味……그러면 이 글은 누가 쓴것이나

店員이 썼느냐? 손님이 쓴것이나?……(舉手)

아니올시다. 이 商店에서 물건 파는 모양을 본

사람이 쓴 글이올시다.

그러면 이 글의 作者는 이 商店을 엿더케 여겨

서 쓴 글이나?

이 商店의 店員이 손님에게 친절하고 正直하게

대접하는것을 보고 감심해서 쓴 글이올시다.

3、全文齊讀……자, 그러면 이 글은 무엇을 쓴것인지,

잘 생각하야가며, 잘 읽어보자. 자,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읽자.

4、確認한 文意를 發表시킨다.……자, 이 글은 무엇

을 쓴 것이나? (對答을 말아 板書)

엿던 商店에서 물건을 팔 때에, 손님에게 對하

야 매우 친절하고 正直하게 하는것을 보고 감

심하야 쓴 글이올시다.

5、感想發表……너의는 이 商店을 엿더케 여기니?

참 조은 商店으로 압니다. 참 아조 훌륭한 商店으로 압니다.

그러라 장사를 하려면 이와 같치 친절하게 하야

야 성공을 하는것이다.

五、板書事項을 읽히고 記帳케 한다.

자, 이 칠판에 쓴것을 다같이 읽어보자……(齊讀)

다, 공책들 꺼내서, 여겨 쓴것을 한번 잘 벗겨서

쫓라.

第三時 指導豫定

第三時 指導豫定

(一) 主眼點 已授의 復習과 新字及 諺文綴字의 練習을 시킨다.

(二) 指導過程

一、已授의 復習

1、指名讀(一一回) 자, 다들 잘 읽었니? 누가 한번

읽어보자.

2、齊讀(二回)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잘 한번

읽어보자.

3、節意의 問答……이 글은 몇줄로 나누었니?……첫

젯줄에는 무슨 말이 썼니?……둘젯줄에는 셋젯줄

에는……

4、文意的 發表……그러면 이 글은 무엇을 쓴 글 이나?……

二、親切한 商店의 批評

친절하고 正直한 商店은 엇더케 되느냐?

손님의 늘 고치지 안코, 신용을 얻어치 큰 성공을 할것입니다.

친절히 못하거나 正直치 못한 商店은 엇더냐?

손님이 잘 오지 안코, 신용이 떨어치서 실패를 하고 말것입니다.

三、新出字 及 諺文綴字의 練習

1、漢字의 練習……(記帳 又は 板書) 자, 내가 부르는 字를 외보아라。(商店, 店員, 三十五錢, 禮)

2、諺文綴字의 練習……(記帳 又は 板書 批評 訂正) (新字를 中心으로) 자, 내가 부르는 말을 받아쳐라。

「사시렵니까, 고맙습니다, 값을 받으며, 드릴가요, 한결갈치. 친절, 정직, 대접할뿐아니라」

(語法을 中心으로) 자, 이번에는 존대하는 말을 쓴다.

「오춧습니다, 불었습니다, 잊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얏습니다, 왔습니다

팔렸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십시오, 오십시오, 사시렵니까」  
자, 존대할 때는 무슨 바침을 쓰는지 알겠니?  
「니」바침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르」바침 밑에 또 「르」이 오는 말을 쓴다。

「얼른, 팔렸습니다, 빨리, 빨래, 몰래」  
자, 이번에는 「값」字를 가지고 쓰는 법을 배우자 (板書)

「값, 값도, 값과, 값하고, 값보다  
값이, 값은, 값으로, 값에」

3、板書事項을 읽힌다。……자 다갈치 이것을 읽어 보자……(齊讀)

第四時 指導豫定

(一) 主眼點 語句 及 諺文綴字의 應用練習을 한다。

(二) 指導過程

一、已授의 復習

1、指名讀(一一回)……자 인케는 하나도 틀림이 없시 읽어보자. 누가 한번씩 잘 읽어보겠니?……(舉手)

2、齊讀(一回)……다 갈치 마추어 읽어보자。

3、文意的 回答……자 이 글은 무엇을 쓴 글이냐?  
무엇이 모범할 일이나?

(以下 二十 八頁에 繼續)

# 한 글

바루  
잡아  
쓰기

# 힘 익

옆에 쓴 것  
이 바른 것.  
이를 꼭 매  
자매자 맛  
후어서 보  
시오.

## 노 로 작 (勞作)

카를라인·에프·오른 작

쇠마치의 소리는 땅땅 울리고,  
화로불은 우닥닥 튀며 피우고,  
달은 쇠난 불뚱을 날리는 중에  
모두 치며 힘드려 일하자는야,  
너희들이 인종일 땀 흘리며,  
노력함이 어렵다 생각나거든,  
세상에 쉬 할일이 없는 어려움  
더욱 기가 막힘을 생각해보라.

흔튼하고 큰 손에 호미를 들고  
도약 벗치 쏘여서는 라난듯한데,

단단한 흙덩이를 밭가자는야,  
너희들의 생각이 흙덩이가  
비로부러 쳐주듯 밭다 하리라.  
그러하나 인종일 힘을 다하여,  
노력함이 어렵다 생각나거든,  
세상에 쉬 할일이 없는 어려움  
더욱 기가 막힘을 생각해보라.

백 배나 박닥의 밭에 크단 무덤이  
입 버리고 잇으며 모진 바람은,  
악귀 같고 배스천에 포호하는야,  
래산 같은 불결이 쉬는 자 업시  
요동하는 창해를 배춧잔자야,  
너희들의 허구간 애를 쓰고서,  
노력함이 어렵다 생각나거든,  
세상에 쉬 할일이 없는 어려움  
더욱 기가 막힘을 생각해보라.

살 나리고 피 줄고 신멸 생겨서

주야장천 심신을 수고로히 해  
일편하에 동포의 령혼 위하여  
경성까지 애쓰는 어진사람아,  
이러하게 고상한 목적으로도  
네 노력이 어렵다 생각나거든,  
세상에 쉬 할일이 없는 어려움  
더욱 기가 막힘을 생각해보라.

힘드려 일하는 자 애쓰는 자야,  
너희들은 크나큰 새 세력으로써  
이들은 세상의 사람을 감화하노나.  
잇는 힘을 다하여 일에 당하며,  
한치만한 시간도 리용 잘하라.  
하늘노쳐 주신바 사람 권리중  
가장 고귀한 것이 일을 함이니,  
너의 권리 앞도 너의 몸의 마음에  
미안하지 않도록 근로하라.

지극하게 어렵고 못 견딜 것은  
세상에 쉬 할일이 없는 것이라.

# 文學와 文士와 文章

(3) 李 光 洙

지금 드린 말씀에서 우리는 文學의 두가지 要素를 얻는데 그것은 文士의 人格의 힘과 文士의 文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人格의 힘이란 말은 좀 模糊해서 좀 說明할 必要가 있습니다。普通 人格者라고 하면 술담배도 안 먹고 外道도 아니하고 信用도 있고 칭찬고 남의 尊敬과 信賴를 받을 사람을 일컫습니다。이것이 무론 높은 人格의 表現이어서 커마다 그러한 人格者가 되고싶은 일이지마는, 내가 宗教的이나 藝術的으로 人格者라고 할 때에는 우에 말승한 外的表現, 即 밖 에 들어난 行爲보다도 그 사람의 主觀的 人格, 人格의 內容이랄가, 根源이랄가를 가르치는것인데, 具體的으로 말승하면 宇宙와 人生의 崇嚴을 깊이 느끼는 힘이 있고, 人生을 達觀하여 自己는 비록 世間을 뛰어났더라도 苦海火宅에 허더기는 衆生의 덧없 는 一生을 품이고 복는 모든 愛慾과 所願과 슬픔과 기쁨과 괴로움과 衆生 自身도 잘 意識하지 못할

그들의 마음과 生活의 秘密과 하소연은 다 알고 깊 이 同情하는 힘을 가져서 그네와 같이 울고 웃고 괴로워할수 있는, 그리고도 이 衆生을 어떤 光明으로 이끌 信念을 가진 그러한 人格을 말하는것이다。이렇게 말승하면 그것은 聖者가 아니냐 聖人이 아니냐, 어디 藝術家냐 文士냐 그래서야 누가 좀쳐로 藝術家, 文士가 되기를 바라겠느냐 하실것입니다。무론 이것은 文士의 理想을 말승하는것이니까 갑자기 모든 文士가 다 이러하기를 바랄수는 없는 일이지 마는, 어느 文士나 이 理想을 向하고 向上하고 精進하지 아니하면 그는 文士의 職分을 十分 自覺하지 못한이입니다。그는 文學을 一種의 遊戲로 아는 이입니다。

文士中에는 人生의 愛慾方面에 特別한 興味를 가져 男女의 愛情과 葛藤을 主題로한 作品을 짓기를 좋아하는이가 많아서 이런 文士는 戀愛詩人이나 戀愛小說家나 하는 名稱을 받습니다。또 어떤 文士는 人生의 醜惡한 方面을 많이 暴露하기를 즐겨하고, 또 어떤 文士는 人生의 病的인 方面을 즐겨서 描寫하고, 또 어떤 文士는 人生의 野獸的, 鬪爭的 方面을, 또 어떤 文士는 人生의 怪奇的 方面을 즐겨 描寫하여 耽奇文學이나 偵探文學이니 하는것을 짓고, 또 어떤 文士는 人生의 愉快한 方面 가볍게 웃을

만한 方面을 잘 그려서 유모어文學을 짓고, 또 어떤 文士는 人生의 抱腹絶倒할 滑稽的 方面에 興味를 가지서 滑稽文學, 諧謔文學을 짓고, 또 어떤 文士는 社會問題를 取扱하고, 또 어떤 文士는 人生의 實生活에서는 도무지 볼수 없는 世界를 空想으로 그리고, 또 어떤 文士는 文學의 形式을 빌어서 個人이나 社會를 諷刺하거나 自己가 抱懷한 理論을 宣傳하는 이른바 宣傳文學, 主義文學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이모양으로 人生의 어느 方面 하나만을 잡아가지고 여러가지 文士의 文學을 짓는 文士가 있을수 있거니와, 그들중에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할 것은 아니니만치 소나무도 있고, 봉송아나무도 있고, 아까시나무도 있고, 또 三十年에 한번 꽃이 핀다는 優曇鉢華라는 稀貴한 꽃도 있고, 莊子 南華經에 말하는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는 없이 크지만 엄청나게 크다는 樗木도 있는 셈으로, 새중에도 두루미, 독수리, 참새, 할미새, 피꼬리, 또 봉황이, 공작이, 닭가지각색 새가 있는 모양으로 文士中에 가지각색 性格, 性癖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가지각색 文學을 지을 것이요 이것을 禁할 必要도 없거니와 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英文學 하나를 例로 들더라도 魏익스피어 모양으로 사람의 性格——貪慾 野心, 優柔不斷 등에서 일어나는 人生의 悲喜劇을 쓰는 사람도

있고, 워즈워드 모양으로 自然의 平和와 神秘만을 노래하는 이도 있고, 밀튼 모양으로 神과 惡魔, 善과 惡의 爭鬪를 우락부락하게 그리는 이도 있고, 하디 모양으로 人情의 눈물겹고 軟軟한 方面을 그리는 이도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버넛소 모양으로 現代와 政治와 社會를 辛辣한 諷刺로 苦笑하는 이도 있고, 러니스 모양으로 國家와 英雄의 榮光을 즐겨 읊조리는 이가 있으면 번즈 모양으로 農村 이름없는 男女들의 日常生活의 素朴한 情景를 노래하는 이도 있고, 또 스티븐슨 같이 人生에 혼히있지 아니하는 이상 病的이오 耽奇的인 것을 좋아하는 이도 있고, 곤라드 모양으로 바다 生活를 즐겨 그리는 이도 있고, 이모양으로 百花가 燎亂하게 英文學이라는 큰 동산을 꾸민 感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種類의 文學이 한듯이 取할 것이요 어떤 種類의 文學은 버릴 것이라고 指定, 制限할 性質의 것은 되지 못하거나, 文學을 좋은 文學, 사람을 크게 感動할 수 있는 文學, 人類中에 가장 높은 人格을 가진 사람을 感動할 수 있는 文學, 實人生에 많은 波瀾과 經驗을 쌓기에 人生의 쓴맛다맛을 본 사람도 感動할 수 있는, 文學, 그 文學을 읽은 뒤에는 讀者에게 그것을 읽기 前보다 人生의 새로운 높은 깊은 感激을 經驗하게 하는 文學——이러한 文學을 짓고 못 짓는 것은 그 作

者의 人格과 文章의 힘에서 찾을수밖에 없는것입니다。同一한 글체를 내이고 글을 짓게 한것——그중에 詩나 賦나 文學的 作品을 짓게 하여서 사람의 人格과 識見을 알려고 하던 옛날의 科擧制度도 결코 意味없는것이 아닙니다。知識이란 없다가 있을수도 있고 또 比較的 短時日에 배울수가 있는것이지 마는、人格이란 그 바탕만은 先天的이요 또 修練의 期限이 길어서 一朝一夕에 아니 一生을 다 바쳐서도 얻을수 없고 고치기도 어려운것입니다。佛家에서는 人格은 몇億萬生을 두고 닦는것이라고 합니다。이點에서 偉大한 文士는 先天的으로 그 素質을 타고나는것이라고 할것입니다。내가 文士의 人格이라 함은 이러한것을 가리친것입니다。다음에 問題되는것은 文章입니다。(次回 完結)

春園 李光洙氏 著

小 說

흥

四六判 八百頁

定價 二 價

送料 二十四錢

일즉 東亞日報紙上에 連載되어 滿天下 讀書家의 心琴을 울리던 現朝鮮文壇의 代表的 傑作이다。最近 著者의 努力은 오로지 이 小說에부어 朝鮮의 情緒를 빈틈없이 描寫어 놓은것이 이 『흥』의 內容이다。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二十 四頁에서 繼續)

三、插畫속에 있는 補充語 練習。  
자, 이 商店에는 었던 물건을 벌려 노았니? (對 答을 말아 補充語 板書)

「유괴그릇, 칠물, 칠사, 석쇠, 부삽, 양동이, 화로, 풍로, 주전자, 돔, 다리미, 인두」

四、語句의 適用練習

자, 다음 말을 너어서 짤은 말을 만들어 보자.  
(舉手發表)

「친철, 正直, 얼른, 한벌, 공손히, 미안, 한결갈치, 에누리」

發表한 말을 共同으로 批判 訂正한다。

五、諺文綴字의 正誤練習

다음 말에 諺文 틀린데를 고쳐보자。 자세히 읽어 보고 아리켜 낸다。 누가 고치겠니…… (小塗板 提出, 指名訂正, 共同批判)

선생님이 오춧습니다。 감시 얼마요。

책상소게 채기 잇습니다。

저상저른 감두차오。 돈을 바드오。

이거슨 팔넛습니다。

한결가치 친철하오。 에누리를 안이하오。 곳일 때 가 업소。」

五、整理 及 學習態度의 批評

# 조선명사강화 (五) 상고편

**무열왕**  
**이백제**  
**를멸한**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니 (서력 六五四년) 이가 곧 다음날 삼국 통일의 훌륭한 임금으로 빛난 이름이 역사상 드리는

태종 무열왕입니다. 김춘추가 임금이 되면서, 그들 재아들 인문(仁問)이 외교의 술에 당하여 더욱 주신에 힘쓴 결과로 당나라는 필경 신라의 정청에 응 즉이고, 일변 신라의 책략(策略)에 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고종(高宗)은 태종의 유언을 깨뜨리고 현경(顯慶) 오년(서력 六六〇년)으로써 수륙 삼만 군사를 발하여 신라와 합력하여 그해 칠월도끼먼저 백제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제의 의자왕(義慈王)은 개인으로도 미덕(美德)도 있고, 국왕으로 무용도 하였으나, 다만 자부심(自負心)이 많고, 연탁을 좋아하며, 성충 같은 현신의 충간(忠諫)을 듣지 아니하여 인심이 이반하였으므로, 이렇게 큰 난리가 생김을 신라와 당나라 두 군사가 국경에 임박하여야 알고 대비할 계책을 의논하여, 남나라 군사는 백강으로 들어오고, 신라 군사는 탄현을 넘어온 뒤에 방어하기를 시작하였으나, 일이 이미 틀렸습니다. 칠월 구일에 백제의 용장 제백이 결사대 오천을 거느리

고, 김유신으로 더부러 황산원에서 혈전하다가 죽은 것도 한갓 백제 최후의 역사를 꾸미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 됨에 그치고, 얼마아니하여 그만 사자성이 신라 당나라 연합군에게 수륙 양방면의 포위를 받아서 마침내 심팔일로써 항복함을 말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리하여 시조로부터 의자왕까지 삼십 일 왕, 육백 칠십 팔년의 백제의 슬픈 그림자만을 길이 백마강 속에 던지고 말았읍니다.

백제는 본디 오부(五部) 삼십 칠군(三十七郡), 이 백성(二百城) 칠십 육만호러니, 당나라가 거기에 오내독부(五都督府)를 두어 다스릴새, 도독 이하 관원은 모두 백제인으로 시키고, 수부로 칭한 응진도독만은 당나라 사람이 맡았읍니다.

**백제민**  
**족의광**  
**복인동**

일이 창졸스러워서 임금은 나가 항복 하였으나, 그 망하기가 급한만큼 백성들의 울분한 정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이 발길을 돌리기 무참게 왕족 괴실복신(鬼室福信)과 중도침(道琛)과 달솔 여자진(餘自進)들이 의병을 일으켜, 임존성(任存城)을 근거로 하여 응진과 사자(泗泚)등을 공격하니, 구민(舊民)이 급시에 향응하여 그 세력을 누를수 없었습니다. 더욱 당나라의 세력이 자리를 잡든지 신라의 통일이 완성되든지 하면, 그 압박의 큰

것을 염려하는 일본이 여러가지 원조를 더하여 광복운동의 기세가 얼마쯤 높아지기도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백제 유민(遺民)은 권후 사년동안이나 새정복자를 반항하더니, 나중에는 당나라로부터 대군이 와서 종과(衆寡)가 틀리므로 피로써 채색된 이 노력도 마침내 수포로 돌아갔읍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백제 구민을 회유하자면 그 권케도 대토만 지켜가는 것이 불가한 줄을 알고 난을 평정한 뒤에는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扶餘隆)을 옹진도독으로 하고, 백제군공(百濟郡公)을 봉하여 사실상 백제 재흥(再興)을 허락하였읍니다.

대종 무열왕은 백제가 망한 익년(서력 六六一년)으로써 봉하고, 그 아들 범민이 위를 이으니 곧 문무왕(文武王)입니다.

### 당나라와 의연합

신라가 당나라에 접근함을 보고 고구려는 더욱 신라의 침략을 재촉하여 보장왕 십사년(서력 六五五年, 곧 신라 무열왕 즉위한 익년)에는 백제 말갈과 한가지 신라 북방 삼십 삼성을 빼앗으며, 신라는 당나라에게 원조를 청하여 당나라가 대군으로써 해마다 고구려의 변방을 집커거리었읍니다. 이 동안에 백제의 일을 마치며, 당나라 신라 연합의 압력이 더욱 크게 고구려에 다다랐으나, 고구려는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틈을 타서는 한강 유역의 잃었던 땅을 찾으려 들었으니, 연개소문의 실력이 이렇게 컸음을 알것입니다.

### 고구려 멸망가려

보장왕 이십오년(서력 六六六)에 이르러 연개소문이 죽고, 그 장자 남생(男生)이 대신 마리지가 되었더니, 국내의 모든 고을을 순시하러 나간 동안에 권력관계에 눈먼 그 두 아우가 내란을 일으키어 형을 치니, 이때문에 그렇게도 굳세던 고구려의 국가적 결속도 차차 풀어지기 시작하여 대외적 탄력이 아주 감퇴하였읍니다. 이 틈을 타서 당나라 신라 두 나라는 일거에 고구려를 쳐서 멸하려하여 연합군으로써 수륙 양 방면으로 협격하였으나, 원척 백련강철과 같아서 용이히 꺾이지 아니하였읍니다. 그러나 병화가 삼년을 계속하고 연합군의 세력은 더욱 증가되매, 아무리 고구려이지마는 이내 커당하지를 못하여 보장왕 이십칠년(서력 六六八) 팔월 이후로 평양이 포위를 받는지 월여만에 드디어 왕이 나와 항복하고, 마리지 천남건(淵男建)은 오히려 폐문고수하였으나, 내용하는 자가 있어 마침내 적군에게 잡히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시조로부터 이십<sup>九</sup>팔왕, 칠백오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고구려는 외압(外壓)보담도 내쟁(內爭)으로 인하여 마침내 자주적 통일 의 이상(理想)



想)을 달하지 못하고 기업이 엮질러버렸습니다. 고구려는 이에 오부(五部), 백, 칠십, 육십, 육십 구만여호려니, 당나라가 이것을 거두어 구도독부(九都督府)를 두고 대개 고구려 사람으로 도독 이하의 관원은 말기어다스리게 하였으며, 서울인 평양의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에만 당나라 사람이 있어 지키고 있었읍니다.

【주석】

一, 성충(威忠) 백제 말년에 좌평(佐平)벼슬에 있는 사람. 후 정충(淨忠)이라도 한다. 의자왕이 음탕하게 늘, 성충이 잔한즉, 왕이 노하여 옥에 가두었다. 성충이 죽을 때에 상서하되 「충신은 죽더라도 임금을 잊지 않나니, 시세를 살피본즉 반듯이 병화가 있을듯 하오니, 만약 적이 들어오는 때는 육도로는 탄현(炭峴)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도로는 백강(白江)을 건너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왕은 좃지 아니하였다.

二, 백강(白江) 금강(錦江) 및 만경강(萬頃江)의 남쪽인 동진강(東津江) 어구.

三, 탄현(炭峴) 지방 전주(全州)의 탄치(炭峙).

四, 계백(階伯) 백제 달솔(達率) 벼슬에 있었다. 신라 당나라 연합군이 치러오매, 계백이 장군이 되어 군사 오천인을 거느리고 나가 막을새, 한 나라로써 두 나라의 대군을 당하게 되매, 나라의 존망을 알수 없는지라, 내 처자가 노예의 대우를 받게 될는지도 모르리니, 살아서 욕을 당하는이보다 차라리 쾌하게 죽는것만 못하다 하고, 그 처자를 다 죽이고 달아가 황산(黃山)들에 이르러 신

라군사와 싸워서 이기고 필경 힘이 다하여 죽었다.

- 五, 사자성(泗泚城) 백제 서울, 지방 충남 부여(扶餘)
- 六, 삼십 일왕 一 온조왕(溫祚王), 二 다루왕(多婁王), 三 기루왕(己婁王), 四 개루왕(蓋婁王), 五 초고왕(肖古王), 六 구수왕(仇首王), 七 사반왕(沙伴王), 八 고이왕(古爾王), 九 책계왕(責稽王), 一〇 부서왕(汾西王), 一一 비류왕(比流王), 一二 계왕(契王), 一三 근초고왕(近肖古王), 一四 근구수왕(近仇首王), 一五, 침류왕(枕流王), 一六 진사왕(辰斯王), 一七 아신왕(阿莘王), 一八 진지왕(陟支王), 一九 구이신왕(久爾辛王), 二〇 비유왕(毗有王), 二一 개로왕(盖鹵王), 二二 문주왕(文周王), 二三 삼근왕(三斤王), 二四 동성왕(東城王), 二五 무녕왕(武寧王), 二六 성왕(聖王), 二七 위덕왕(威德王), 二八 혜왕(惠王), 二九 법왕(法王), 三〇 무왕(武王), 三一 의자왕(義慈王), 七, 웅진(熊津) 공노루, 지방 공주(公州)。
- 八, 달솔(達率) 백제의 벼슬 이름。
- 九, 이십 팔왕 一 동명성왕(東明聖王), 二 유리명왕(琉璃明王), 三 대무신왕(大武神王), 四 민중왕(閔中王), 五 모본왕(慕本王), 六 태조왕(太祖王), 七 차대왕(次大王), 八 신대왕(新大王), 九 고국천왕(故國川王), 一〇 산상왕(山上王), 一一 동천왕(東川王), 一二 중천왕(中川王), 一三 서천왕(西川王), 一四 봉상왕(烽上王), 一五 미천왕(美川王), 一六 고국원왕(故國原王), 一七 소수림왕(小獸林王), 一八 고국양왕(故國壤王), 一九 광개토왕(廣開大王), 二〇 장수왕(長壽王), 二一 문자명왕(文咨明王), 二二 안원왕(安原王), 二四 양원왕(陽原王), 二五 영양왕(嬰陽王), 二六 영류왕(榮留王), 二八 보장왕(寶藏王)

로빈슨 무인 절도 표류기 (五)

내가 이 섬에 표착한 뒤로 생각하면 꿈 같으나, 손을 꼽아 헤여보면 벌써 이십 삼년이나 이러한 절해도 (絶海孤島)에 지내었는데, 그동안 밤낮 송구하게 여기고 지낸 것은 야만들이 오지나 아니할가 할이외다.

내가 또 필경 이 섬에서 죽거나 생각하였으나, 하느님 믿은 뒤로는 아무 걱정없이 되었고, 내가 기르는 짐경이는 벌써 이십여년이 되매, 여러 가지 흉내를 내어 내 마음을 위로하고, 배에서 데리고 온 개는 육년째 가서 죽어버렸고, 개와 함께 데리고 온 고양이는 새끼가 연해늘어서 거두어 기르기에 애를 썼는데 그중에 청미가 괴악한것도있기로 두세마리 남겨두고 말끔 죽어버렸고, 또 두세마리는 케절로 들도 도망하여 갔으니, 이때 내 식구로 말하면 내 몸 밖의 고양이 세마리와 짐경이

한머리외다.

그해 십이월 어느날 우연히 해안에 갔더니, 커튼에서 화롯불을 질러서 연기가 보이는지라, 이는 필연야만들이 온것이므로, 내가 농사지어 놓은 보리가 그놈들의 눈에 들면 탈이라고 매우 걱정이 되어 두시동안이나 생각하고 있다가, 자제히 살펴 보거나 할양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두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망원경을 들어 연기 올라오는 곳을 바라보즉, 야만 아홉놈이 불을 에우고 있으니 이

더운 때의 몸을 녹이느라고 그리할 리는 없고 필연 가지고온 사람의 고기를 구워 먹는것이라, 눈도 깜작거리지 않고 본즉, 얼마있다가 불이 차차 밀어들어오매, 언덕에 매어있던 외나무배를 집어라고 어디론지 잡니다. 말끔 간 뒤에 가만히 동산에서 나려와 불 피던 곳에 가본즉, 여기저기 사람의 고기와 뼈가 헤어쳐있는데, 이것을 본즉 소름이 쪽쪽 끼치며, 또 생각하여본즉 어느날 어느시에 나

이렇게 될지 모를지라, 그날부터 날마다 망원경을 들고 야만들이 오고 아니 오는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날 아침에는 여러 사람이 탄 외나무배 오륙척이 커기로서 오더니, 해변에 내려서는 또 불을 피우고 무엇인지 음식을 만들려 하는지라, 어떻게 만드노 하고 청신들여 본즉야만 소녀놈이 배로 달음질하여 가더니, 배로써 사람 들을 끌어다가 넘

어뜨리고 소녀놈이 드리덤비어 재할 (宰割)하기를 시작하는데, 남아있는 한사람은 옆에서 불불 떨면서 이끌을 보고 있는지라, 내 생각에도 어떻게하여 그 불상한 사람을 살려내리라 하고, 마음먹고 있는중, 그사람도 또한 틈을 타서 도망하여 어떤으로 오는데, 야만 두세놈이 뒤를 따릅니다. 얼마 달아나다가 그 사람이 강변에 와서는 다리가 없으므로, 달아나지는 못하고 딱 서는지라, 이때 내 생각에는 앞뒷일 다 생각하지 아니

하고, 다만 그 사람을 살려내려할 마음만 볼라듯 일어나서 급히 몸을 일으켜 달음질하며 간직, 그 사람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모양인고로, 손을 들어 일흔 오라고 부르르고 뒤로 쫓아오는 놈 하나를 총대로 훔쳐매리니, 한놈이 즉시 활을 들이 살을 쏘려하거늘, 나도 또한 총을 당겨 단포방에 죽여버렸습니다.

커기 있던 많은 무리들이 내 총소리에 동류 하나가 죽음을 보고, 무슨 일이 났나 하여 황황망망조하는 지라, 이에 나는 도망하여온 사람을 손으로 불러 빙그레 웃어보이주, 그 사람이 겨우 마음을 놓고 내앞에와서 꿇어앉아 간절히 감사하였습니다. 이리하는 동안에 총대의 일어맞은놈이 정신을 차려 일어난고로, 이것을 보고 도망하여온 사람의 급히내손에서 칼을 빼어다가 그야만에게가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 두고 보주, 청미도 온량하고 신체도 강건

한고로, 오래 함께 있기로 하고 살려내던 날이 금요일이기로 이름을 금요일(Friday)라 하였는데, 어찌어찌하였는지 이십 오년만에 처음 사람의 소리란것을 듣고보니, 마음에 이상스럽기 짝이 없어 차차 우리말을 가르쳐 대강 통칭하게 된 후에는 매일 이 쫄자로 더부러 이야기하는것이 큰 낙이었읍니다.

그 뒤에는 금요일에도 잘 이르는 말을 듣고, 또 이야기가 일수인고로 살림이 매우 재미있어지고, 나는 금요일이에게 행상 법교에 관한 일과 예수의 구세(救世)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한즉, 이 뒤에는 쫄자의 문는 말이 매우 번거로우므로, 내가 도리어 귀찮게 되었는데, 도를어 말하면, 쫄자가 차차 믿음으로 나아감이 분명하였읍니다.

어느날 아침에 내가 남생이가 먹고싶어 전될수 없으므로, 금요일이를 불러 해변에 가서 한두마리 잡아오라 하여 내어보냈더니, 얼마되지아

나하여 나는듯 돌아와서 울을 뒤어 넘어 씨그러지는지라, 내 생각에 무슨일이 생겨서 그리하는고하고, 그 연유를 물은즉, 금요일이의 말이 「처방님 처방님, 탈났읍니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한즉, 쫄자는 숨이 턱에 닿어 「처방님, 쫄것 좀 봅시오. 쫄기의 나무 배가 이삼척 오시오」

하고 털털 털털니, 이는야만들이 우리들을 쳐죽일 모양으로 온것인줄 깨달은 까닭이라, 이때 나는 금요일이는 격려하여 차을 준비를 하고, 각기 총점을 가지고 망원경을 들고 뒷동산에 올라가 보주, 커기 야만 이십 일명이 또 사람 셋을 잡아가지고 왔읍니다.

나는 금요일이에게 이르기를 「내가 명령하기 전에 천단이 발포를하면 나된다」하고 이에 들이 나무 틈바위 틈으로 나가서야만 있는 곳에 근접하여 금요일이로 하여금 대적의 모양을

정찰하게 하였더니, 회보하기를 야만  
들이 한사람은 밭치 잡아먹는 중이  
요, 남아지 두사람은 백인종인데 방  
장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지  
라.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즉시 앞  
으로 나아가 야만 있는 곳에 서 참  
얼마되지 아니한 곳에 가만히 숨었  
읍니다.

얼마아니있다가 심구명은 또한 불  
을 쪼이고, 남아지 두명은 일어나 백  
인들을 죽일 준비를 하는고로, 이에  
금요일에게

「자아」

라고 명령하고 두사람은 일시에 밭포  
하여 금요일에게 한번에 두놈을 죽  
이고, 세놈을 부상시키었는데, 나는  
저우 한놈을 죽이고 두놈을 부상시  
키었을뿐이었습니다.

그리한즉 잡혀온 두 백인은 놀라 자  
빠지는지라, 다시 들이 밭포하여 두  
놈을 또 죽이고, 몇사람을 부상시키  
고, 들이 크게 호통하면서 나아가,  
나는 백인 있는대로 가고, 금요일이

는 외나무배로 도망하여 가는 야만  
을 쫓아 잡읍니다. 이에 나는 백인  
의 결박진것을 클러주고, 포로도 갈  
말로.

「노형 두분은 다 누구시오」

한즉, 그 사람은 라틴말로

「전도하러 온 사람이오」

하는데, 이 말에서 커는 이야기할 근  
력이 없는듯 하므로, 내가 먹을것을  
가적다가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하고,

「나는 또 차워야 하겠소」

하고, 칼과 육혈포를 그 사람에게 주  
어 그 옆에 쉬게 하고, 즉시 외나  
무다리로 향하여 갔읍니다.

이때 금요일이는 외나무배로 향하  
여 가니, 남아지 야만 일곱놈은 그  
만 달아났으나, 거기 배 한척이 남  
아 있고, 사람 하나가 결박지어 있  
으므로 풀어주려 한즉, 일은 공교하  
게됨이 많은지라, 마침 그 사람의 금  
요일이의 아비인고로, 금요일의 좋아  
함이 비할때 없이 가로 뛰고 세로  
뛰고 노래를 다 불러 어찌할줄을 몰

랐읍니다.

쉬게하여 둔 두백인이 얼마 지나매  
정신을 차리는고로, 여러가지 일을  
다 물어보았더니, 그 두사람은 스페  
인말로 금요일이의 아비를 가리치며

「나는 십 칠인의 동류로 더부러

파선을 당하여 이양반의 때에게 불  
들렸는데, 이양반들은 매우 우리를 불  
상하여기더니, 어느날 다른 때와 차  
음을 하여 패하여 우리와 이양반이  
다 대적에게 사로잡히었다가, 오늘  
잡아먹을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여  
기 온것입니다.

합디다. 이때로 부러 일주일동안은  
매일이 스페인 사람으로 더부러 여  
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남아지  
동류들에게 가셔다 데리고 오라 하  
였읍니다.

그리하여 그 두사람이 금요일이의  
아비로 더부러 외나무배를 타고 동류  
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이곳에 돌아  
와서는 이만저만하게 군호를 하였읍  
니다. (또 있소)

손의리우  
된로으

# 木 布 産 土

늘감옷내  
다시쌈

◇오싸 다보木廣 은屬木·다보絹造人 은屬紬◇

▲本木은 紳士 淑女의 周衣, 치마, 洋服內衣, 寢具等에 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灰色, 靛色, 柳綠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二十尺 一段에 特等 二圓 七十五錢, 一等 二圓 五十錢, 二等 二圓 二十五錢, 三等 二圓 이오. ▲壽木은 周衣, 치마, 學生服, 勞働服, 運動服等에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柳綠色, 銅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二十尺 一段에 上一圓 七十五錢, 次一圓 五十錢, 一圓 三十錢 一圓 十錢 九十錢이오. ▲明紬는 바지, 저고리, 周衣 치마, 와이사스等에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草綠色, 紫色 黃色 灰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四十尺 一疋에 上九圓 八圓 七圓 六圓 次五圓 四圓이오. ▲土紬는 바지, 저고리, 周衣內次, 洋服內次, 寢具等에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紫色, 黃色, 綠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四十尺 一疋에 上五圓 二十錢, 次四圓 八十錢, 四圓 四十錢, 四圓이오. ▲繭皮紬는 周衣 치마, 洋服에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柳綠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四十尺 一疋에 四圓 四十錢이오. ▲熟紬는 用途와 染色이 다 明紬와 같고 價格은 大幅(明紬의 一幅 八分) 二十七尺 一疋에 九圓 五十錢, 小幅(明紬 同幅) 四十尺 一疋에 六圓이오. ▲縹紬는 明紬를 小紋入 二重織한 것인데 用途와 染色은 明紬와 같고, 價格은 大幅(明紬의 一幅 八分) 二十七尺 一疋에 十三圓, 小幅(明紬 同幅) 四十尺 一疋에 十圓 五十錢. ▲亢羅 四十尺 一疋에 特上十一圓 五十錢, 次十圓 七圓 四十尺 一疋에 上七圓 五十錢 次六圓 七十錢 六圓, 五圓 二十錢. ▲春紗 四十尺 一疋에 上七圓, 次六圓 五十錢, 五圓 八十錢 五圓 二十錢. ▲白苧 四十尺 一疋에 上十四圓으로 六圓까지. ▲麻布 三十五尺 一疋에 上十圓 五十錢으로 三圓七十錢까지. ▲人字織(씨루代用) 夏洋服地 一件에 九圓. ◇地方送料 一疋(一段은 一疋과 同)에 三十四錢 二疋 四十七錢, 三疋 六十錢, 四疋 七十三錢, 五疋 七十九錢, 六疋 八十五錢 五疋 二圓 五十錢 百疋 三圓(染色한 것은 一疋 或은 一段에 三十錢씩 增함)

京洞 城三 府百 樂番 園地 獎産社 電振 話替 光京 化城 門一 三〇 一五 九七 番番

新春劈頭 讀書界에 던지는 巨彈!!

本社에서 刊行한 沈熏氏의 力作!!

發賣前부터 注文이 殺到하는 大人氣

長篇小說

# 永遠의微笑

四六判 五〇〇頁

定價 一圓三十錢

送料 十二錢

『永遠의微笑』는 일즉이 中央日報紙上에 連載되어 十數萬讀者의 마음을 쥐어 흔들여 놓던 沈熏氏의 力作이다。이 小說이 끝을 막자 讀者에게로부터 오는 讚辭와 激勵에 움지기어 이제 單行本으로 發行하게 된것이니 作者의 力量을 이제 새삼스럽게 紹介할 必要가 없거니와 氏는 朝鮮文壇에 있어서 天才라는 이름을 듣는다。 더욱이 『永遠의微笑』는 朝鮮의 農村에서 取材한 것이니 이땅을 질머지고 나가는 朝鮮青年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질 것이요, 좋은 先生이 되어질 줄 믿는다。『永遠의微笑』를 읽지 않고 어찌 小說의 맛을 알 것이며 朝鮮의 農村을 아랴。

京城府堅志洞三十二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崔鉉培氏著 **중등 조선 말본** 畝八十錢  
 崔鉉培氏著 **우 리 말본** 畝九十錢  
 金科奉氏著 **김 더 조선 말본** 畝二圓五錢  
 申明均氏著 **한글 歷代文選** 畝一圓  
 申明均氏著 **周時經先生遺稿** 畝一圓  
 中央印書館 **訓民正音原本** 畝二十錢  
 朝鮮語學會 **한글마춤법동일안** 畝二十錢  
 權憲奎氏著 **朝鮮語文經緯** 畝一圓  
 張志暎氏著 **朝鮮語綴字法講座** 畝一圓  
 金克培氏著 **한글鐵筆書自習書** 畝五十五錢  
 宋完植氏著 **最新日鮮大字典** 畝一圓五錢

◇新刊紹介

**世界笑話集 全一冊**

童話家 崔仁化氏가 짚막한가 장興味있다고 생각하는 우수한 이야기를 널리 세계에서 모은 것이 실로二百八編。定價二十五錢。京城鍾路二丁目九一 新文堂(振替京城二三〇四〇)發行

**한글 支社**

鎮南浦 三和町 姜 焄  
 光州邑 崔奇一  
 東京市 品川區 大井水神町 姜鎬哲  
 二〇七九 朴周陽  
 載寧邑 日新里 李明克  
 鐵山邑 東平洞 劉天德  
 義州邑 鄉校洞 朴潤元  
 平北 七坪市 金成煥  
 尙州邑 金永斗  
 統營邑 鄭德寶  
 高敞邑 陳春海

總販賣所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社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置하고저 하시는데는 한번 書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朝鮮語學會**

定價	
一個月	七錢
三個月	二十錢
六個月	四十錢
一年	七十五錢
代金은 반듯이 선금을 要함。	

廣告料	
表紙表面	二十圓
全裏面	十五圓
普通頁	十圓
詳細는 相議를 要함。	

昭和十年八月廿九日 印刷  
 昭和十年九月一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允宰**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印刷人 **金鎮浩**  
 印刷所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 花洞 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 京城一〇〇四四番

延禧專門學校教授 崔鉉培 先生 著

[告 豫]

# 우리말본보 完

十月下旬發行

□出版界의 破天荒! □堂堂 千餘頁 大著!

著者が 全生涯를 한글 연구에 바치었으며 十餘年 教壇에서 實際 經驗을 쌓아 最後로 收穫한 것이 이 우리말본이다。 音聲論、品詞論、文章論等 무릇 文法 全體를 包括하여 詳明히 講義한 것으로、이렇듯 彪大한 千餘頁의 巨編은 實로 조선 말과 글이 있던 以後 初有한 記錄을 지었다。 今後 朝鮮 文法을 論하는자 此書를 두고 다시 말할 자 없을 것이다。

昭和十九年九月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一回發行

한글 第二卷 第七號